

탁아활동의 길잡이 1995년 1,2월 합본호 첫발행 92.5.25. 통권 27호 발행인 최현숙

우리네 아이들

95. 1, 2

자/익/사/회/탁/아/스/인/압/회

탁아활동의 길잡이 1995년 1,2월 합본호 첫발행 92.5.25. 통권 27호 발행인 최현숙

우리네 아이들

95. 1, 2



〈호기심만 싹틔우기〉

눈 띄는 변화와
만남 고사들의
우리 아이들의
고집에 맞서
세상 깨닫는다

저/역/사/회/탁/아/소/연/협/회

우리네

아이들

95. 1, 2월호

<통권 27호>

짜

임

새



<표지사진 설명>

눈 덮힌 부여땅에서
만남 교사들의 모습.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그들에게 있음을
새삼 깨닫는다.

■ 일하며 생각하며 / 2

새로운 10년의 출발점에 서서

최현숙

■ 신년특집 / 4

올해년 새해, 지탁연에 바란다

편집부

■ 기획 / 8

영아 이유식 식단(2)

영아탁아소모임

■ 지상강연1. / 16

어린이와 그림책-선생님이 할 일

김중철

■ 지상강연2. / 22

'지역자치' 학습노트

이태호

■ 특집 / 26

1995년도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사업방향과 계획

남인순

■ 새날을 여는 사람들 / 29

"새로운 다짐을 하고 싶어요"

주혜민

■ 좋은 그림책 소개 / 34

■ 건강하게 삽시다 / 36

소아예방접종과 관련되어 알아두어야 할 사항

김철환

■ 시사말뚝이 / 38

우리의 존재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편집부

■ 글마당 / 40

탁아소별곡

옹기종기어린이집

우리들의 목소리

이문섭, 신서영, 박인혜

■ 현장에서 날아온 편지 / 45

■ 탁아계 풍향 / 46

■ 소식과 소식 / 49

■ 벼룩시장 / 52

■ 편집부에서 / 53

■ 일하며 생각하며

새로운 10년의 출발점에 서서

최현숙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회장

올 해는 지탁연 활동의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 기간들은 시간적으로도 결코 짧지 않았지만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들에게 더욱 많은 변화를 느끼게 한다. 보육을 둘러싼 모든 상황과 조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척되었기 때문이다.

10년이란 시간과, 빠르게 돌아가는 상황의 변화는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해왔다. 올해 역시 연초에 만들어진 서울 민보련, 그리고 전국 민보련 결성 등으로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일단 좋은 일이다. 이는 너무 오랜 동안 누적되었던 압축된 보육현실에 대해 보상하려는 움직임으로 여겨지기에 그러하다.

보육운동세력의 준비와 대응, 그리고 정부의 행보조차 현재까지는 크게 보아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기초작업에 불과하며 이제부터 본격적 시작이라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자세를 견지하여 끊임없는 과제 창출과 영역 개발, 해결점을 모색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앞에 놓여진 1995년도는 매우 중요한 변화의 시기이다.

지난 10년을 돌아볼 때 지탁연을 중심으로 하여 6년간의 법, 제도요구활동, 그리고 3년간 초기 정부의 보육정책에서 누락된 민간보육의 공공성 확보 및 양적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 등이 주요 활동이라면, 정부 보육정책의 골간 완성, 지방자치시대 원년, 서울시 민간, 가정보육시설연합회 결성, 전국 민간, 가정보육시설연합회가 출범하여 민간보육운동의 대중조직화가 이루어진 점 등은 보육운동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기 때문이다. 즉 지방자치 원년 속에 보육실천 원년을 올바르게 만들어내는 것, 지역실정에 부응하는 합리적 보육공급 실현, 질적 개선을 위한 적극적 활동 개시, 다양한 보육주체들의 다양한 활동과 이의 바람직한 연대 등이 곧바로 실천으로 요구되어진다 하겠다.

변화를 꾀하려는 주체들의 창조적 노력과 스스로의 변화가 없으면 모든 논의와 고민과 결정이 허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전의 활동에 매이거나 그 연속선상 속에서 자신의 사고와 활동을 가둔다면 결코 만들어낼 수 없을 것이다.

지난 1월 총회에서 우리는 향후 지탁연의 조직 및 활동 방향을 대폭적으로 수정, 전환하였다. 그것은 전국 민보련이 출범하므로 그동안 민간보육을 대변해 온 활동을 이전 시키고 새로운 보육운동 영역을 개척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고민은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보육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교사들이 단순 전달자가 아닌, 프로그램의 창조자이며 이론가가 되려는 노력에서 가능하다. 제도요구에 있어서도 질적 과제에 초점을 맞추어 민보련과의 역할중복을 피하고 공보육을 향한 상호보완적 조직을 만들어가자는 것이었다.

이 모든 것들은 결코 쉽게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변화를 꾀하려는 주체들의 창조적 노력과 스스로의 변화가 없으면 모든 논의와 고민과 결정이 허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전의 활동에 매이거나 그 연속선상 속에서 자신의 사고와 활동을 가둔다면 결코 만들어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힘겨운 결단이 아닐 수 없다. 그간 일정 영역에서 발 갈고 씨 뿌리는 역할에 충실하였는데, 거두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다른 황무지로 장비를 옮기려다 보니 그렇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역할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서로 모여 새 사업에 대한 꿈을 키우고 생각을 나누고 격려하면서 안하던 것, 혹은 약하게 하던 것들을 새롭게 부상시켜 만들어가자.

결국 새로운 출발에서 힘을 얻는 것은 우리네 아이들 미래에 대한 헌신과 결단에서 가능할 것이다.

■ 신년특집

“올해년 새해, 지탁연에 바란다”

편집부

또 다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다.
올해년, 돼지의 해를 맞이하여 지탁연을 지켜보고
함께 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옮겨보았다.

밝은 새해,
벅찬 새해, 그속에 우리는 갖가지 것을 기대해봅니다.

특히 금년 한해는 우리가 발로 뛰는 만큼의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우리의 역량에 따라 자기 평가를 받아 볼 수 있어서 가슴 두근거리기도 하는 설렘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보육을 최일선에서 감당하고 계신 지탁연에 무한한 감사를 보내며 달리는 말에도 채찍질이 필요하듯이 아픈 때 감수하고라도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끝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의 문제에 동참하시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그 일. 참으로 힘들고도 위대한 그 일에 선두주자로써 기꺼이 감당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박정혜 / 서울시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 회장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함께 참여하고 연대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윤찬영 /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탁연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지면으로나마 인사드립니다.

지난 10년간 숨가쁘게 달려오셨지요. 일하는 여성들의 방치아동을 보육하기 위해 우리 손으로 탁아소를 시작하면서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고 국가로부터 탁아시설 확충 및 민간탁아소에 대한 지원을 받아내는 등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이제 전국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가 발족되어 지탁연의 짐이 조금 덜어지긴 했지만 질 좋은 아동보육 프로그램을 교사들의 근무조건을 개선해 나가는 일은 여전히 지탁연이 해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탁아교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체계가 마련되도록 요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보육시설에서 일하는 교사들과 함께 해나가는 일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1995년 6월 지방의회 선거에서는 지금까지 지탁연이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탁아예산 확보를 해왔던 경험과 지혜를 토대로 탁아문제와 아동복지문제 해결을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는 후보를 선택해 의회에서 탁아정책 실현을 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지탁연의 회원들과 여성운동과의 연대를 높여나가길 기대합니다. 육아의 사회적 서비스체계를 확보하는 요구사항은 여성운동의 주요과제이기도 하지만 바로 탁아운동은 여성이 주체가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여성운동과의 연대의식을 높여나가길 기대합니다. 건강하세요.

남인순 /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지난 한 해동안 지탁연에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한 만큼 세상은 좋아질 것입니다. 더욱 힘차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농촌탁아사업에서도 일한 만큼 거두고 마을 아이들에게 밝은 웃음을 만들어 갑시다.

그리하여 새해에는 농사에 풍년 들고, 가족들 건강하고, 아이들 쑥쑥 크고, 좋은 세상 끌어오는 그런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엄영애 / 농촌탁아소 돈지어린이집

지탁연 선생님들, 한 해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95년에는 아름답고, 희망찬 일들만 이루어지기를...
더불어 잘 사는 세상과 탁아활동을 더 큰 각오와 함께 같이 만들어 가요.
“세쌍들의 방” 어린이집

보내주신 책자를 잘 받았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새해에도 뜻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분야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황영자 / 천마어린이집 원장

처음 지탁연 자활대표자회의에 갔을 때 생각이 난다. 그때는 지탁연이 뭐하는 곳인지도 잘 몰랐는데... 더구나 다른 학교 자원활동가들을 처음 대하는 자리라서 어색하기만 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지탁연에 대한 개념도 생기고 회의때도 누구 못지않게 말도 많이 하게 된다. 이제서야 뭔가 좀 알 것 같은데 다음 주체에게 물려줘야 한다니 1년이란 시간이 긴 시간은 아닌가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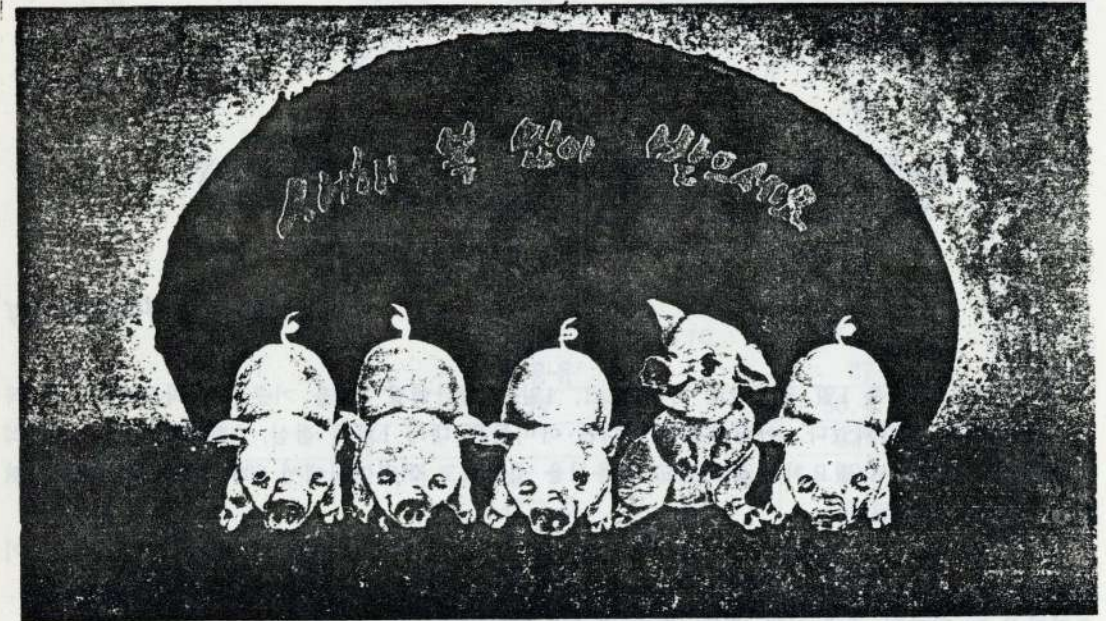
지탁연과 함께 한 활동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머니큰잔치였다. 행사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전과정에 참여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다른 자활들과 함께 일하면서 거리감이 없어지고 이제 그 속의 한 일원이 되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왜 진작 그렇게 되지 못했는가 아쉽기도 했고, 한편 우리 각각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준 지탁연에 고마움도 느꼈다. 아직은 그 힘이 크지 않더라도 그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 하나 하나가 아름답기 때문에 지탁연은 더욱 큰 힘이 되어 우리 곁에 남으리라 믿는다.

김지영 / 중앙대 사랑터 전 홍보부장, 중대 영문93

아침에 분수가 되어 세상을 적시는 아이들 숨결이 맑은 강이 되어 흐르고 푸른 바다가 되어 넘치는 걸 보면서 어른들이여, 우리의 고향이 어디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아침을 여는 아이들 앞에서.

조자경 / 유아교육신문사 기자



비나이다. 비나이다. 두 손 모아 비나이다.

갈라터진 땅 위로 굴뚝같이 달디 단 빗물 흐르게 하옵시고,

메말라버린 우리 가슴에도 햇살처럼 환한 사랑 머물게 하옵소서.

이제 새로이 시작하는 올해년,

매일 돼지꿈 꾸듯이 모든 일에 넉넉함으로 대하게 하옵소서.

보육시설 확충계획 공수표로 되지 않게 하옵시고,

6월 지방제 선거에는 보육사업 고민하는 좋은 후보 당선케 하옵시며,

이제 태어날 전국민보련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바람직한 보육사업을 위해 온 교사들이 땀땀 뭉칠 수 있도록 고개 숙여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간절하게 비나이다.

어린이집에 안전사고 한건도 없게 하옵시고,

교사, 아이, 부모, 이웃 모두가 건강과 웃음짓게 하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되어 비나이다.

■ 기획

영아 이유식 식단(2)

영아탁아소모임

1-3세아의 식단은 1일 권장열량 1,200kcal, 1일 권장단백질 35g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본 식단은 하루치로 제시되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대개 1회의 점심, 2회의 오전·오후간식을 먹는데, 가정에서 필요치의 50% 정도의 음식을 섭취하고 어린이집에서 50% 정도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하루 필요치를 나눠보면 아침식사 25%, 저녁식사 30% 정도로 가정하고, 오전 간식 5%(열량기준 55kcal), 오후간식 10%(열량기준 110kcal), 점심 30%(열량기준 330kcal)로 재조정하면 된다. 오전간식 5% 정도면 대개 사과 반쪽, 혹은 굴 1개 정도이다.

각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이 아침을 먹고 오는지 확인하고, 이에 따라 오전간식의 경·중을 정하면 좋을 듯 하다.

단위 : 열량(kcal), 단백질(g)

월	화	수	목	금	토
아침	떡국 김치 생선묵조림 콩나물무침	보리밥 미역국 야채볶음 김구이	밥 두부된장국 김치 감자멸치볶음	콩나물밥 무우국 김치 어묵감자볶음	만두국 김치 달걀조림 콩나물무침
점심	장국죽 김치 취나물	오곡밥 콩나물국 깍두기 참치버거	굴죽 깍두기 야채달걀말이	국수장국 김치 두부조림	샌드위치 우유
저녁	보리밥 김치 쇠고기무우국 떡찜	밥 당면국 김치 감자부침	고구마밥 김치 잔멸치튀김	짜장밥 김치 단무지무침 콩장	밥 시금치된장국 김치 호박전 김구이
간식	우유 요플레 참쌀경단	우유 감 땅콩	두유 밤엿탕	우유 쌀튀밥강정 사과 야쿠르트	오징어만두 요플레 오렌지쥬스
열량:1191 단백질:36.06	열량:1196 단백질:45.78	열량:1163 단백질:43	열량:1182 단백질:34.01	열량:1207 단백질:37.34	열량:1178 단백질:41.58

요일	때	음식명	재료명	필요량(g)	열량(kcal)	단백질(g)
월	아침	밥	밥 1/2공기	140	200	4
		배추국	배추	20	3	0.3
		멸치	멸치	3	12	2.4
		된장	된장	5	6	0.43
		고추가루	고추가루	약간		
		소계			21	3.13
	점심	김치	배추김치	30	6	0.5
		감자볶음	감자	20	14	0.29
		당근	당근	10	4	0.4
		양파	양파	10	5.4	0.5
		식용유	식용유	3	27	
	계	소계			50.4	1.19
요	점심	장국죽	쌀	3Ts(30g)	100	2
		쇠고기	쇠고기	15	18.7	2.8
		표고버섯	표고버섯	20	67	6.7
		참기름	참기름	1ts(5g)	45	
		물	물	1 1/2컵		
		간장, 양념	간장, 양념	조금		
		소계			230.7	11.5
	심	김치	배추김치	30	6	0.6
		취나물	취나물	30	3	0.3
		참기름	참기름	1	9	
		식용유	식용유	1	9	
		참깨, 파 마늘, 간장	참깨, 파 마늘, 간장	조금 조금		
일	점심	소계			21	0.3
		보리밥	보리밥 (보리30%)	1/2공기 (140g)	200	4
		김치	배추김치	30	6	0.6
		쇠고기	쇠고기	10	12.5	1.9
		무우국	무우	20	6	0.6
		참기름	참기름	3	27	
		소계			45.5	2.5
	저녁	떡찜	가래떡	45	100	2
			쇠고기	20	25	3.75
		소계			125	5.75
	계				376.5	7.85
간식	간식	우유	우유	200ml	125	6
		요플레	요플레	1개	110	
		참쌀경단	참쌀경단	2개(20g)	44	0.88
		계			279	6.88
		총계			1191	36.06

요일	때	음식명	재료명	필요량(g)	열량(kcal)	단백질(g)	
화요일	아침	떡국	흰떡	60	133	2.6	
			쇠고기	10	12.5	1.9	
			달걀	10	16	1.49	
			참기름	3	27		
			소계		188.5	5.99	
		김치	배추김치	30	6	0.6	
		점심	생선묵조림	생선묵	30	27	4
				무우	10	3	0.3
	소계				30	4.3	
	저녁	콩나물무침	콩나물	30	11	1.1	
			참기름	2	18		
			소계		29	1.1	
			오곡밥	쌀, 수수	30, 10	100, 33	2, 0.67
		점심	콩나물국	참쌀, 조	10, 10	33, 35	0.67, 0.7
				소계		201	4.04
				콩나물	20	7	0.7
멸치				31	12	2.4	
수요일	점심	소계		19	3.1		
			깍두기	깍두기	20	6	0.6
			참치버거	참치	30	40	6
		저녁	심	양파	10	5	0.5
	감자			10	7	0.14	
	달걀			10	16	1.49	
	빵가루			10	33	0.6	
	우유			1ts	2.8	0.13	
	기름			5	45		
	소금, 후추			조금			
소계				148	8.86		
목요일	계				374	16.6	
		밥	밥	½공기	200	4	
	점심	당면국	당면	10	33	0.6	
			양파	10	5.4	0.5	
			당근	5	2	0.2	
			감자	10	7	0.14	
			멸치	3	12	2.4	
			소계		59.4	3.84	
	저녁	김치	배추김치	30	6	0.6	
			감자부침	감자	20	14	0.28
		점심	감자부침	양파	10	5	0.5
				치즈	10	33	1.67
				밀가루	1ts	16	0.3
				기름, 소금	5, 약간	45	
				소계		113	2.75
				계			

요일	때	음식명	재료명	필요량(g)	열량(kcal)	단백질(g)	
화요일	간식	우유	우유	200ml	125	6	
		감	단감	80(中½개)	50		
		땅콩		10(1Ts)	45		
		계			220	6	
		총계			1196	45.78	
수요일	아침	보리밥	보리30%	½공기 (140g)	200	4	
		미역국	건미역	3	6	0.6	
			멸치	3	12	2.4	
			소계		18	3	
		야채볶음	숙주	10	3	0.25	
	오이		10	2	0.19		
	당근		10	4	0.4		
	감자		10	7	0.15		
	점심	김구이	식용유	2	18		
			참기름	2	18		
			소금				
			소계		52	0.99	
	오후	김구이	김	2	5	0.5	
기름			1	9			
소계				14	0.5		
계					284	8.4	
일요일	점심	굴죽	쌀	3Ts(30g)	100	2	
			굴	40	24	3.6	
			참기름	5	45		
			소금				
		소계		169	5.6		
	저녁	심	깍두기		20	6	0.6
			야채달걀말이	달걀	1개	83	7.49
				시금치	20	6.7	0.67
				당근	10	4	0.4
				양파	10	5	0.5
			기름	5	45		
			소금				
			소계		143.7	9.06	
계			318.7	15.26			

요일	때	음식명	재료명	필요량(g)	열량(kcal)	단백질(g)
수	저 녁	잔멸치튀김	잔멸치	10	34	6.6
			달걀	6	10	0.9
			밀가루	5	16	0.3
			녹말가루	5	16	0.3
			청주	1ts	6.5	
			기름	5	27	
요		소계		109	8.2	
		계		301	12.63	
일	간 식	무가당두유		200ml	125	6
		밤엿탕	밤	30g(中3개)	50	1
			설탕	5	20	
			물엿	2.5	10	
			물	½ts		
			기름	6	54	
			소계		134	1
		계		259	1	
목	아 침	총계			1163	43
		밥		½공기 (140g)		
		두부된장국	두부	20	18	1.27
			멸치	2	8	1.6
			된장	5	6	0.43
			소계		32	3.3
		김치	배추김치	30	6	0.6
		감자멸치 볶음	멸치	5	16.5	3.35
			감자	20	14	0.29
			양파	10	5.4	0.5
식용유	3		27			
소계		62.9	4.14			
요		계		301	12.04	
		국수장국	국수	40	133	2.7
달걀	10		16	1.49		
멸치	2		8	1.6		
오이	10		1.9	0.19		
당근	10		4	0.4		
소계			163	6.38		
일	점 심	김치	배추김치	30	6	0.6
		두부조림	두부	30	27	1.9
			식용유	3	27	
			양념장			
			소계		54	1.9
		계		223	8.88	

요일	때	음식명	재료명	필요량(g)	열량(kcal)	단백질(g)	
목	저	짜장밥	밥	100	143	2.86	
			돈육	5	6	0.94	
			양파	6	3	0.3	
			감자	6	4	0.08	
			녹말가루	2	6	0.13	
			식용유	3	27		
			짜장	10			
			파				
	녁	단무지무침	마늘				
			소계		189	4.31	
			김치	배추김치	30	6	0.6
			단무지	20	3.8	0.38	
			참기름	3	27		
			고추가루	약간			
요		깨소금					
		소계					
		콩장	검정콩	10	37.5	4	
		간장	5	2	0.14		
		설탕	5	20			
		소계		59.5	4.14		
		계		285.3	6.43		
		일	간식	우유	우유	200	125
쌀튀밥강정	쌀튀밥			1컵	33	0.66	
물엿	10			40			
설탕	20			80			
물	10						
소계				153	0.66		
사과				½개	50		
야쿠르트				1개	50		
금	아침	총계			1182	34.01	
		콩나물밥	콩나물	40	14	1.4	
		쌀	50	160	3.3		
		양념장					
		소계		174	4.7		
		무우국	무우	20	6	0.6	
		국멸치	3	12	2.4		
		된장	5	6	0.43		
	오후	침	소계		24	3.43	
			김치	배추김치	30	6	0.6
			어묵감자	어묵	20	18	2.7
			볶음	감자	10	7	0.14
			식용유	3	27		
			소계		52	2.84	
일		계			256	11.57	

요일	때	음식명	재료명	필요량(g)	열량(kcal)	단백질(g)		
금	점심	샌드위치	식빵	1쪽	100	2		
			달걀	½개	42	3.7		
			오이	10	1.9			
			마요네즈	1Ts	100			
	심		소계		244	5.89		
		우유	우유	200	125	6		
		계			369	11.89		
요일	저녁	밥		½ 공기	200	4		
			시금치	조개살	20	15	2.3	
			조개살국	시금치	20	6.7	0.67	
			된장	5	6	0.43		
				소계		28	3.4	
			김치		30	6	0.6	
	녁	김구이	김	2	5	0.5		
			식용유	1	9			
				소계		14	0.5	
			호박전	애호박	30	8	0.8	
			밀가루	5	17	0.33		
			달걀	¼개	21	1.85		
토요일	아침	만두국	기름	3	27			
				소계		73	2.98	
			계			321	11.48	
			간식	참쌀떡	참쌀떡1개	70	160	
				식혜			101	2.4
				계			261	2.4
	총계				1207	37.34		
	요일	아침	만두국	밀가루	½ 컵	167	3.3	
				돈육	10	12	1.88	
				숙주	10	2.5	0.25	
				두부	20	18	1.27	
				김치	20	3.8	0.38	
소계					203	7.08		
점심		김치	배추김치	30	6	0.6		
		달걀조림	달걀	½ 개	42	3.7		
			간장	5	2	0.14		
			소계		44	3.84		
		콩나물무침	콩나물	30	11	1.1		
			참기름	2	18			
오후	총계	파						
		마늘						
총계	참깨							
	소계			29	1.1			
계					282	12.62		

요일	때	음식명	재료명	필요량(g)	열량(kcal)	단백질(g)
토	점심	밥	밥	½공기	200	4
			시금치	20	6.7	0.67
			국멸치	3	12	2.4
			된장	5	6	0.43
			소계		24.7	3.5
			단무지무침	20	3.8	0.38
	심	참기름	단무지	3	27	
			소계		30.8	0.38
			뱅어포구이	5	16	3.3
			양념장			
			소계		16	3.3
			계		271.5	11.18
요	저녁	밥	밥	½공기	200	4
			김치	30	6	0.6
			실파장국	10	2.8	0.28
			달걀	20	33	2.9
			소계		35.8	3.18
			명태조림	30	27	4
	녁	무우	양념장	10	3	0.3
			소계		30	4.3
			계		272	12.08
	간식	오징어만두	물오징어	50	37	5.5
			부추	30	10	1
			참기름	5	45	
			파, 마늘			
			깨소금			
			후추가루			
일	아침	소금	만두피		50	
			소계		142	6.5
			요플레	100	110	
			오렌지쥬스	200(1컵)	100	
			계		352	6.5
			총계		1178	41.58

■ 지상강연1.

어린이와 그림책 - 선생님이 할 일

김중철 / 어린이도서연구회 부회장

이 글은 지난 1월 4일 교사수련회에서 마련되었던 김중철님의 강연 발제문이다. 복사물이 부족하여 받지 못한 교사와,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회원들을 위하여 전문 수록한다.

1. 우리 아이들

제가 꼬마일 때만 하더라도 놀 곳이 많았습니다. 동무들도 많았습니다. 집은 가난해도, 먹을 것은 적어도 하루 하루가 신나는 날이었습니다. 뒷동산에 올라가 머루와 다래를 먹고 아카시아잎을 먹으면서 동무들과 뛰어다니고, 싸움을 하면서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재미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배고픈 기억과 책을 제대로 보지 못한 기억들이 지금 보면 매우 불행했다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이 모든 게 동무들과 즐겁게 노는 일에 많이 파묻혔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아이들은 그때보다 더 불행한 때를 보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이들 주위에 살아있는 동물들이 사라지고, 꽃과 나무들도 점차 없어지고 있습니다. 주위에 동무들도 오래 사귄 수 없고, 동무도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른들이 만든 장난감을 갖고 놀거나 기구들을 타고 놀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부모도 잃고, 친구도 잃고, 자연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우리의 아이들을 가둬버렸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라는 곳에 모여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니 집 안에 갇혀 지내는 아이들에 견주어 보면 친구를 얻을 수 있으니 행복한 아이들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아무튼 이런 아이들을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가르칠까 하는 생각에 가득찼습니다. 아이들을 가두어 두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생각에 아이들은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끼리 함께 지내고, 아이들을 다시 자연으로 돌려 보낼 생각보다는 아이들에게 교훈과 지식을 넣으려고만 합니다. 가난하고, 돌볼 어른이 없는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일은 매우 행복한 일입니다. 그 일이 아주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해도 그 속에서 지내는 어른들은 아이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

니까요.

저는 아이들 책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0년을 아이들 책만 만들다 보니 아이들을 꽤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걸 얼마 전에야 알았습니다. 책 속에서만 살았기 때문이지요. 아이에게 받아쓰기는 필요없다고 생각해서 아이에게 글씨 쓰기를 가르치지 않았는데 막상 아이가 받아쓰기를 잘못된 걸 알고는 몇 번 가르쳐보았는데 아이가 계속 틀리니 화가 났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려면 똑바로 하라고 소리쳤지요. 그랬더니 아이가 서러워서 마구 우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아빠가 ‘있’ ‘어’ ‘서’ 라고 똑바로 말하면 내가 왜 틀려? 아빠가 ‘잇서서’라고 말했잖아!” 나는 이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내가 아이에게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지요. 이 일 말고도 아이와 지내는 한달동안 제가 잘못된 때는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아직도 아이를 잘 모르는구나 하고 느끼게 되었지요. 저는 늘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와 함께 지낼 시간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이를 머리 속으로만 이해했지, 아이를 진자로 마음 속으로 이해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돌보고 아이와 함께 지내는 학부모,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아이를 올바르게 알 수 있는 여러 사례를 쓴 글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 선생님은 아이들과 함께 노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갓 태어나면서 세상의 모든 일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어른들이 가르치기 전에 초롱초롱한 눈으로 세상의 모든 사물을 보고(시각), 조금 있으면 손과 발을 움직이면서 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게 됩니다. 흡을 만지고, 더운 물에 손을 데면서 사물의 특징을 알아갑니다(촉각). 두 귀로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게 됩니다(청각). 코로 엄마 아빠의 냄새를 맡게 됩니다(후각). 입으로는 맛을 보게 됩니다(미각). 이 오감으로 아이들은 배우게 됩니다. 부모들은 이런 오감을 어떻게 키워주는가가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그림책을 보면서 놀라게 되는 일은 많습니다. 우리들은 스쳐 지나가는 그림도 아이들은 놓치지 않고 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아이들 책을 만드는 사람이나 모두 아이의 이런 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아이의 능력은 놀랄 만큼 뛰어나기 때문이지요.

“아이들은 구애받지 않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들 어른과 같은 생각으로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흥미를 끄는 것만을 보지만, 아이들은 모든 것을 봅니다. 아이들은 아직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의 양복에 어떤 단추가 붙어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그걸 보고, 몇 개 붙어 있는지도 압니다. ... 아이의 흥미는 켤 수 없습니다. 몸 주위의 세계에 있는 제일 큰 모양에서 아주 작은 세부에 이르기까지 봅니다. 그리고 아이는 ‘모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쳐다보고, 또 봅니다. 이상한 세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 책을 만드는 사람은

아이의 손을 이끌고, 가장 공상적인 모험으로 이끌어 주면 좋은 것입니다.”(로저 드뷔진 ‘아이들 책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그런데 우리 어른은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려 하고, 지식을 자꾸 가르치려고 합니다. 아이를 감각으로 깨치게 하기 보다는 머리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선생님들도 다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많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만큼 힘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쉽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이 지식을 아이들 머리 속에 심어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얼마나 많이 알았나 몰랐으면 어디가 잘못되었나 하는 걸 고민하게 됩니다.

네살에서 여섯살까지의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윤구병 교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 그림책과 아이들

아이들은 늘 움직입니다. 어떤 일이든 신나게 뛰어놀습니다. 집안은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으로 매우 좁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탁 트인 공간에서 뛰어놀게 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갇힌 공간에서 아이들은 말썽을 피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넓은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른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아이들을 좁은 공간에 가두어 놓고, 그 공간에서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가르치려고 합니다. 책을 읽어 주는 것도 이런 점이 있습니다. 책만 좋아하는 아이, 이런 아이는 참으로 행복한 아이는 아닙니다. 책은 한 아이가 활동하는 물리적 공간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한 아이가 활동하는 공간은 매우 좁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사는 공간은 지역을 다 합하면 엄청나게 넓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사는 공간을 알려주는 일은 아이들이 더 넓은 세계에서 뛰놀게 해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그 넓은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책 읽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옛이야기를 즐겨 듣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림책은 아이들이 그림을 보며 그 넓은 세계를 자유로이 상상하게 하는 즐거움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이 그림책을 아이들에게 읽어 주고 보여 주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특히 4-6살의 아이들에게는 이야기 그림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주의해야 되 가장 큰 특징은 사실과 허구, 진실과 거짓에 대한 구별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이 시기의 아이들이 상상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 밖의 강아지를 호랑이로 둔갑하여 생각했다면, 아이는 실제의 사실과는 관계없이 공포스런 얼굴로 강아지의 존재가 아닌 호랑이로 인한 상황을 떠들어댔 것입니다. 아이들의 이러한 상상력은 그들의 처지와 상관이 있습니다. 마치 거인나라에 소인이 살고 있듯이 무력한 상황 속에서 상상의 세계를 통해 움직임의 욕구를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상력이 왕성할 때의 아이들은 조심해서 다루어야 합니다. 이들의 자유스런 욕망은 최대한 충족되어야 합니다. 현실이나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어른들의 도덕률에 따라 ‘착한 아이’가 될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상상의 시기에 허구는 유용하고 필연적이며 정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순된 언어로 표현하자면 ‘창조적 거짓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와 책 17집 30-31쪽)

‘창조적 거짓말’을 하는 시기인 4-6살의 아이들은 그림책을 통해 더 넓은 세계로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림책은 그림과 글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하나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삽화 그림책이 아닙니다. 우리 그림책은 아직도 몇 권의 책을 빼고는 아직도 삽화 그림책입니다. 아이들에게 상상력을 키워 줄 책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선생님은 외국의 그림책을 잘 보아야 합니다. 왜 좋은 그림책인가? 어떤 점이 아이들에게 사랑받는가? 왜 재미가 있는가?

그림과 글이 하나로 어우러져 무엇인가를 표현한다는 것은 그림이 이야기의 전개에 얼마나 중요한 몫을 하는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들이 그림만 보고도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고,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책입니다. 아이들마다 보는 눈이 다르고, 선생님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뛰어나게 사물을 봅니다. 우리는 그 눈을 키워주고, 그 생각을 옮겨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림책은 아이들끼리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고, 선생님과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4. 선생님이 할 일

그림책을 아이들에게 보여 줄 때는 다음과 같이 하세요.

1. 어떤 그림책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그림책인가? 그림책 한 권 한 권마다 읽고 보면서 왜 좋은지,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 줄만 한지 서로 이야기합니다.
 2. 그림책을 보지 않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 주어야 합니다. 선생님은 그림책을 먼저 다 보고, 어느 페이지에 어떤 내용, 어떤 그림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림 한 장에 어떤 그림이 있는지 구석구석 알아야 합니다.
 3. 한 페이지의 글의 내용을 길게 또는 짧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그림 한 페이지에 관심을 보일 수 있는 시간만큼 이야기를 들려 주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그림에 관심을 보일 수 있게 짧은 이야기로, 그 다음에는 좀 길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4. 그림책 없이 이야기만 길게 늘여서 들려 줍니다. 눈으로 보는 훈련 말고도 귀로 듣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 이런 방법으로 그림책을 아이들에게 보여 주세요. 그런데 이 방법만으로는 곤란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반응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좀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아이들과 나눈 이야기나 아이들이 한 말을 잘 기록해야 합니다. 이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잘 듣고 그 말을 기록하도록 하세요. 아이들의 나이별 기록을 정리해서 두십시오. 이런 기록들이, 지탁연 선생님들이 다 하시면 어느 교수들이 하는 일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유아교육에서 제일 안되어 있는 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잘 모르면서 머리 속으로 이것저것 하는 생각이 나 미국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하려는 교육방법이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데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이런 일들도 하지 못하고 있는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런 조사가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는 곤란합니다. 선생님 한 분이 하시는 경험만으로는 아이들을 올바르게 알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행동, 하는 말이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왜 다른지를 다른 지역 선생님들이 하신 조사와 견주어 보면서 실제 연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일에서 잘 했다고 보는 실천사례는 늘 글로 써야 합니다. 우리는 선생님들이 하신 일이 한 분의 성과로 끝나는 걸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 한 분이 그만 두시면 우리는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늘 불만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도 그렇게 행동을 해왔습니다. 이걸 회가 잘못하는 일입니다. 회가 발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회가 나에게 무엇을 도와주었나를 생각하기 앞서 회원인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회에 도움이 되고, 그게 각 지역 모두를 합치면 회의 활동이 됩니다. 똑똑한 한 사람이 하는 일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한 일이 더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건 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허드렛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참된 일인지 서로 믿고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버려진 아이들을 끌어 안으려는 여러분의 노력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즐거움을 주었는지,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잘못했으면 어떻게 고칠 것인지 더 한번 생각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그림책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이의 대변자가 되어 어른들에게 비평을 해주는 비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비평가는 마치 어려운 말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걸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읽고 보는 독자인 아이들이 좋아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고른다는 점만으로도 여러분은 올바른 비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비평의 출발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입니다. 한 개인이 비평가가 되기보다 여러분 전체가 비평가가 되는, 아이들의 진정한 대변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는 아이들을 위한 좋은 그림책을 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회 집행부가 해야 할 일

1. 지탁연 연구분과에서 선생님들을 위한 외국의 좋은 사례집, 좋은 글을 늘 알려주는 일을 합니다.
2.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에서 한가지씩 기록하도록 하고, 그 기록을 모아두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료집으로 발간해야 합니다.
3. 지역에서 하는 일에서 잘한 것들을 뽑아 사례 발표를 하게 하고, 널리 알리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지역에서 하시는 평범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회원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제가 놀라는 점은 이런데 모든 회가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교수고, 무슨 회의 회장이라는 이름에 우리는 너무 얽매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는 발전하지 않습니다.

4. 다른 단체의 일들을 알고 그 일들을 회원들에게 잘 알려 주어야 합니다. 어린이도서연구회, 놀이연구회, 굴렁쇠 노래팀, 글쓰기교육연구회 등의 활동을 알려주세요.

지역 선생님들이 하실 일

1. 날마다 하시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그 일들을 꼭 정리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늘 잊어버립니다. 특히 아이들이 하는 말과 행동에 우리는 자주 놀라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일을 그대로 쓰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선생님과 어떤 점에서 달리 느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2. 각 지역별로 연구모임을 갖도록 하십시오. 연구모임 수는 5명이나 7명이면 됩니다. 각 모임은 한가지 주제로 1년 이상 연구를 하셔서 그 연구물을 꼭 발표하시도록 합니다. 발표하지 않는 연구모임은 오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제가 모이면 그것이 회의 성과로 드러납니다.
3. 지역 연구모임은 이론 공부도 해야겠지만 아이들과 함께 뛰놀고 아이들을 애정있게 보는 일을 검토하고, 하는 일을 한단계 높이는 일이 되어야겠습니다.
4. 지역 학부모 모임을 만드십시오. 아이들 문제는 선생님만의 노력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의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이분들이 조그마한 노력이나마 할 수 있게 일을 주도해 주어야 합니다. 처음 이 일을 할 시간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져서 그렇지, 그 일을 하면 부모들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 지상강연2.

‘지역자치’ 학습노트

이태호 / 주민자치연구모임

1. 지역이란 무엇인가

(1) 자연적·경제적·문화적 복합체로서의 지역

지역이란 인간이 협동하여 자연 속에서 일하고, 사회적·주체적으로 그리고 자연의 일원으로서 인간답게 사는 장(場), 생활의 기본적 권역이고, 인간 발달의 장, 자기 실현의 장, 그리고 문화를 계승하고 창조해온 장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역은 자연·경제·문화라는 세 가지 요소의 복합체이다. 지역은 인간의 정주권이라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다면적인 기능을 갖고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생활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지역의 종합성

그러므로 지역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려는 시각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 경영의 기본 목표는 자연·경제·문화의 종합적 발전이다.

인간사회는 크게 도시와 농촌이라는 두 개의 정주 형태를 취하고 있다. 각각을 지역으로 보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보다는 양자의 유대 속에서 지역을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시와 농촌의 대립은 인간과 자연의 물질대사를 교란시키고, 도시인간의 육체적 건강(자연)을 파괴하고, 농촌인간의 정신생활(문화)을 박탈해왔다. 인간과 자연의 물질대사의 장으로, 그리고 인간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장으로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며 결합되는, 종합되는 지역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3) 지역의 독자성

지역은 독자성을 갖는 개성적인 존재이다. 자연·경제·문화라는 세 요소는 지역마다 다르고, 복합방식에도 지역마다 특징이 생겨난다. 지역의 매력이란 독자성의 매력이다. 독자적이기 때문에 존재의식이 있고, 지역발전을 담당할 사람을 끌어들이 수 있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역은 항상 변화하는 존재이다. 변화하지 않는 지역은 존속할 수 없다. 그러나 변화가 지나치게 빠르면 지역의 독자성을 잃게 된다. 지역의 독자성은 간단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역의 자연·경제·문화, 그 어느 것도 지속적인 대결이 없으면 육성되지 않는다. 지역 만들기에는 지속과 변화의 균형(balance)이 중요하고, 계획의 논리

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의 독자성은 지역의 종합성을 전제로 한다. 지역의 독자성은 지역사람이 여러가지 지역적 조건 아래서, 자연·경제·문화, 이 세 요소의 복합체로서 인간의 생활권인 지역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의 독자성에서 생긴다. 다른 말로 하면, 지역의 인간이 역사적으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느냐 라는 지역인간의 삶의 방식의 문제이다.

(4) 지역의 자치

지역은 주민을 주인공으로 하는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존재이고, 자치의 단위이다. 주민이 주체가 되어 완성하는, 주민 자신이 생활하고 일하고 여유시간을 즐길 수 있는 장, 그것이 지역이다. 지역은 인간이 협동하고 자연 속에서 일하며, 전인적으로 발달하고 자율적 존재로서 자유로운 인간으로 성장해 가는 장이다. 지역의 운명은 지역사람들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역 분권과 주민 참가를 토대로 하는 지방자치가 확립되어야 한다.

지역의 크기는 생산력 발전, 교통·통신 수단의 발달, 주민통치 역량의 발달 등을 배경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불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민이 공동의 이해를 추구하고, 귀속의식을 느끼며, 지역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규모라야 한다. 지역의 발전은 지역에 사는 사람의 자발적인 의욕에 달려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국민경제적 견지에서 보더라도 지방자치에 기초하는 지역 경영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다. 국민국가의 수직적 행정은 지역의 종합성이 보장되지 못하므로, 여러 정책을 지역 단위에서 종합화하는 자치체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국가의 확실적인 행정으로는 지역의 독자성에 대응할 수 없다. 따라서 지역마다 다양한 형태를 취하는 지역문제에 대응하여, 독자적인 지역 정책을 구체화하는 자치체의 존재가 불가결하다.

지역은 인간이 서로 협동하는 장이고 인간발달의 장이지만, 지역은 기본적 권역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말할 것도 없이 한정된 공간인 지역에는 한계가 있다.

(5) 지역간의 교류와 연대

지역은 열린 존재이다. 따라서 지역간의 교류와 연대는 필수적이다. 지역은 각각 지리적·역사적 조건을 달리한다. 다른 지역의 독자성과 접촉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을 보다 풍요롭게 하고, 지역은 새로운 발전으로 향하는 자극을 받는다. 그러나 지역간의 교류나 교환이 상호보완적인 것만은 아니다. 지역간의 불평등을 확대시키고, 지역간의 지배와 종속관계를 만들어낸다. 지역이 독자적인 존재로서 지니는 주체성을 보존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과의 교류나 교환을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다른 지역에 대한 지배를 확대하여 자기 지역이 성장할 때, 이것을 지역의 발전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다른 곤란한 지역에 대한 봉사의 정도에 따라 지역발전의 척도로 삼을 것인가는 인간의 삶의 존재방식을 묻는 문제이다.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인간의 발달·주체형성을 기초로 하여, 지역의 자립과 지역간의 연대를 기초로 하는 지역간 시스템으로서의 국토 경영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는 시도해 보아야 할 대

단히 중요한 주제이다.

(6) 중층적 지역 시스템

오늘날 이른바 국제화 시대에 '지방화'의 논리란 협소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지역보다는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규모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세계를 단일의 세계 공간으로 다룰 것인가, 중층적 지역 시스템으로 다룰 것인가이다. 지역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자연·경제·문화의 복합체인 지역이라는 인간의 기본적 생활권의 경영이 우선적으로 있고, 지역간의 종합적 조정 시스템으로서의 광역 경영·국토 경영과 국제적 조정 시스템으로서의 국제적 지역 경제나 지구 경영이 있다. 그리고 지역 경영을 기본으로 하는 중층적 지역 시스템의 경영문제로서 세계를 설정할 수 있다.

(7) Think Globally, Act Locally.

지구는 국토나 세계와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한 구성 부분이다. 현대 사회에서 지역은 직접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 지역내의 국제화와 밖으로 향하는 국제화라는 두 방향으로 지역의 국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 경제나 국제 경제, 세계 경제에서 지역간의 상호 의존관계가 더욱 더 긴밀화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지역은 물리적인 공간으로서는 비록 작고 좁지만, 인간의 사회적 공간으로서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지역 속에 전국이나 세계가 있다. 지역은 전국적·국제적·세계적 존재이다.

전국이나 세계의 정보가 곧바로 지역으로 전해지는 것만은 아니다. 지역의 움직임 속에 전국이나 세계의 움직임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을 통해 전국이나 세계를 볼 수 있다. 동시에 지역의 움직임이 전국이나 세계를 움직이게 한다. 지역 만들기에서 맞부딪히게 되는 일들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지역으로부터 국민사회·국제사회·지구사회를 전망하는 사고방식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

"지구 규모로 생각하고, 지역으로부터 행동하자"

2. 지금 왜 지역자치가 요청되는가

(1) 생활권 보장으로서의 지역자치

(2) 밑으로부터의 민주주의의 확립과 확대

(3) 보다 나은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대안(alternative)으로서의 지역자치운동

3. 지역 자치가 지향해야 할 사회의 최소 규범

(1) 사회적 약자(여성,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가 드러나는 사회

(2)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지 않는 사회

(3) 친(親)생태적 사회

4. 지방 자치와 주민의 권리

(1) 선거권

(2) 피선거권

(3) 직접청구권

직접청구란 간접민주제를 보완하고 주민의 의사를 보다 직접적으로 의화나 집행부에 반영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자신들의 대표자가 독선에 빠지지 않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행동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적으로 그 시정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직접청구는 선거권을 갖는 일정수의 주민이 연서(連書)를 하여, 조례의 제정 폐지, 사무 감사·의회 해산·의원이나 단체장 등의 해직을 청구하는 일종의 합동 행위로, 지방 자치를 실시하는 경우 대부분의 나라에서 제도적으로 주민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A) 주민 발안(Initiative)

조례 제정 또는 폐지의 청구

(B) 리콜(Recall)

의회 해산 청구

의원, 단체장, 기타 고위 공무원의 해직 청구

(C) 주민 투표(Referendum)

(D) 사무 감사 청구

주민 감사 청구

주민 소송(Tax Player Suit)

<참고문헌>

* 궁본현일 지음, 주민자치연구모임 옮김, 『지방자치의 역사와 전망』, 도서출판 주민자치, 1991.

* 宮本憲一, 『地域經濟學』, 有斐閣, 1990.

* Lewis Mumford, 『The Culture of Cities』, New York, 1938.

* Thomas E. Cronin, 『Direct Democracy』, Harvard Uni. Press, 1989.

* 吉田善明, 『地方自治と住民の權利』, 三省堂, 1982.

* 幾村英一 星野光男 編, 『地方自治讀本』, 東洋經濟新報社, 1990.

* 地方自治總合研究所, 『直接立法/住民投票制度』, 研究所資料 No. 8.

■ 특집

1995년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사업방향과 계획

남인순 /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1. 들어가는 말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은 지역과 부문의 여성단체 27개가 연합한 단체이다. 지금까지 여연은 개별단체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들을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제반 여성권익에 관련한 법, 제도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왔다. 앞으로도 여연의 이러한 역할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개별 여성단체들의 역량이 강화되면서 차츰 그 역할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된다. 일례로 지탁연이 중심으로 벌여왔던 탁아제도 개선 및 예산확보에 관한 활동을 민간보육시설이 연합해서 자체적으로 활동해 나가려는 것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따라서 이러한 기조에서 1995년 여연이 주력해 나가야 할 사업과제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2. 1995년 여연의 사업방향 및 과제

1) 지방의회 여성참여 확대사업

1994년에 이어 올해의 중점사업으로 설정하였다. 1994년에는 여성의 정치참여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홍보사업과 여성후보 발굴 및 훈련사업을 해왔다면, 올해는 발굴된 여성후보들의 인지도 제고 및 생활정치, 열린정치로서의 지방자치시대를 만들기 위한 유권자들의 역할과 올바른 주권 행사하기, 지방자치시대의 여성정책 수립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학교급식과 탁아조례 제정운동, 지방의회 출마자들에게 여성공약 약속받기, 공정선거 감시활동 등 다양한 대중활동을 벌여 여성조직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범여성계가 결합되어 있는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를 통해 정당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방안 및 지방의회의 여성공천 20% 비율을 확보하도록 지속적인 여론화 및 압력활동을 전개한다.

2)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11회 한국여성대회 '남녀유권자한마당' 개최

3월 12일(일) 여연의 회원단체와 남녀유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여연이 발굴한 여성후보를 발표하고, 지방의회 여성참여의 필요성을 주제로 하는 2인극과 여성노래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성의 날' 기념행사는 여성과 남성,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대중적인 문화행사로 진행하면서 여성연대의 힘을 모아내는 여성축제가 될 것이다.

3) 통일과 평화를 위한 사업

분단 50년, 해방 50년을 맞아 통일운동에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통일원년이 되도록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등 민간통일운동단체와 함께 연대해 나가며 그동안 여성들이(방위비 삭감을 위한 연대모임) 꾸준히 전개해온 방위비 삭감을 정부에 요구하고 방위비 삭감을 요구하는 엽서 쓰기 등 대중적 참여를 위한 다양한 방식을 개발한다. 특히 일제로부터의 해방 50년을 맞은 현시점에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도 일본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세우기 위해서 정신대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죄 및 국가배상운동을 정대협과 함께 활발히 전개해 나간다.

4) 방과후 아동보호정책마련 및 사회보장 관련법의 성차별적인 내용을 개정해 나간다.

방과후 아동보호제도마련과 예산확보를 위해 지방의회 차원의 조례제정운동을 전개한다.

여성관련 사회보장정책과 관련한 국민연금법, 의료보험법, 고용보험법, 손해배상법 등에는 여성들에게 일방적으로 불평등한 수혜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성차별적 사회보장 정책관련 입법조항을 개정하고 사안별로 성차별적 입법에 대한 헌법소원 소송이나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관련입법등을 개정한다. 관련법 조항에서의 성차별적 요소에 대한 연구사업 및 외국 여성관련 사회보장법과 사회보장 행정체계에 대한 연구사업, 입법개정과 청구소송을 위한 관련 전문가활동, 여론화 작업을 위한 공개토론회, 대정부·정당 압력활동 등을 전개한다.

5) 기층여성운동력 강화사업

정부의 여성노동관련법 개정윤직임에 대해 법적 실효성을 확보해낼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여성운동계의 내용적 대응을 조직하고(남녀고용평등법, 직장탁아관련 영유아보육법) 아울러 고용불평등 관련사안을 발굴하여 사안에 따른 법적 대응을 통하여 판례 확보에 주력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의 여성불평등 사안을 여론화시킨다. 또한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화 방안과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권익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활동을 전개한다.

6) 제4차 북경 세계여성대회 참가

한국 NGO위원회와 결합하여 북경여성대회에 조직적으로 참여하고 주제별 사전 워크샵에 결합해서 행동강령을 준비해 나간다.

7) 지역여성조직 강화사업

생활과 자치문제를 중심과제로 설정하는 지역여성조직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 지역 여성 정책과제를 개발(교육문제, 쓰레기문제 등)하고 지역여성조직 지도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도력 훈련을 전개한다.

8) 여성운동의 중간지도력 강화사업

9) 경제자립사업

여인의 재정자립을 위해 경제사업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정확보와 조사활동에 들어간다.

10) 연대사업

의료보험통합일원화및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 민간복지법 제정운동, 인간사회발전한국포럼, 북경여성대회 한국NGO위원회,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등과 연대활동을 전개한다.

■ 새날을 여는 사람들

- 온누리탁아방 정성희 선생님을 찾아서

“새로운 다짐을 하고 싶어요.”

주혜민 / 편집부

복수에서 단수로,
단체에서 인물로,
기획방향이 다소 바뀌게 되다보니 인물설정에 많은 고민이 되었다. 여러모로 남다른 의미와 소망을 담고 있는 95년이기에 더욱 그러했다. 우선 등잔밑을 뒤희기로 했다.
우리 안의 인물 - 그래! 탁아교사!
올해가 돼지해 - 그래! 돼지띠!
돼지를 찾자. 행운을 찾자. 우여곡절 속에 난상토론을 거쳐 나이든 돼지(?)를 찾아나서기로 했다.

.....
납작납작한 집들이 골목길을 따라 줄지어 있었다.

구로역에서 '100'으로 시작되는 버스면 무조건 타서 구로시장 다음역인 구종점역에서 내리면 된다. 내린뒤 고개슈퍼를 끼고 오른쪽 골목으로 간다. 아직, 계속 가야된다. 가다보면 가게가 끝나는 지점에 골목 사거리가 나오는데 약국과 야채가게가 보이게 될 것이다.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야채가게 주인아주머니에게 물어봐야 된다.

온누리 놀이방이 어딴죠?

이쪽(손가락방향)으로 쪽 가면 새로 지은 큰 건물 말고 그 앞에 허름한 양철대문집을 가르쳐줄 것이다.

“정성희 선생님 계세요?”

.....
오밀조밀한 구조의 온누리탁아방은 세가구가 살던 공간을 터서 만든 곳이란다. 그래서 그런지 걸맞지 않은 엉성한 것들이 불쑥불쑥 있지만 꽤 아늑했다. 우리들이 들어섰던 시간은 아이들 낮잠시간이었다. 잠들지 않은 몇녀석을 이리저리 구슬리고 난 후에야 정성희씨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올해 6월이면 탁아경력 만 8년이 되는 정성희씨(37)는 지탁연 유일의 나이든 돼지띠 선생님이다.

“아직 애인은 없어요. 하지만 하긴 할거예요. 연애는 남들한만큼 하긴 했는데, 일에

대한 욕심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일하면서 연애를 한다는게 거추장스럽게 느껴졌거든요. 지금은 아니라 예전예요.”

지금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했다.

“지내다 보니까 조금 후회가 되더라구요.”

자연스럽게 결혼관과 나름대로 내린 남성관에 대한 견해를 이야기하게 되었다. 결혼 상대에 대한 조건이 없어졌단다. 다만 인간적으로 성숙하고 주변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면 될 것 같다는 단서조항을 붙이는 정성희씨의 모습이 이전의 모습과는 달리 쉬워보이지 않았다. 조건이 없어진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까다로워진 것 같았다.

“올해는 정선생님의 해인만큼 남다른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좋은 꿈 꾸셨어요?”

“좋은 꿈보다 우선 철학관에 한번 가봐야겠어요. 저의 반쪽이 부산에 있는지, 서울에 있는지 그것만이라도 알고 싶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똑똑해보이는 것보다 가능성을 안고 유연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좋아져요.”

농담을 잘 안할 것 같은 인상이라 그런지 정성희씨의 말이 더욱 재미있게 느껴졌다. 그의 말 속에서 부산출신임을 대변에 알 수 있었다.

정성희씨는 87년 6월 사랑교회에서 운영했던 탁아소에서 교사생활을 시작했다. 부산 공대 출신인 그가 탁아일에, 그것도 부산이 아닌 서울에서 시작하게 된다는 좀 싱거운듯 하지만 운명적인 이야기가 있다.

졸업후 3년의 직장생활. 일과 가치관이 분리되지 않은 일을 갈망하게 되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다(정성희씨의 표현에 의하면) 서울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왔다가 소개로 탁아교사가 되었으니 좀 싱겁기도 싱겁지만 운명적이지 않을 수 없다.

“아이들을 좋아하냐고 묻더군요. 생각해본 적이 없었지만 아이들도 한 인간으로 보고 대해야 된다고 했지요. 그걸로 탁아에 입문한 셈이죠. 처음엔 2-3년만 할 생각이었어요. 그런 것이 지금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딴 생각을 많아하게 되요. 발목잡힌 기분까지 들 때가 있거든요.”

발목잡힌 기분이라는 말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성희씨의 말처럼 2-3년의 계획이 어찌다 보니까 8년의 세월을 보냈다는게 납득이 될 듯하면서도 여전히 납득하기엔 껄름직한 세월이 아닐 수 없었다. 질문보다 이야기를 좀더 듣기로 마음먹었다.

“최근엔 우울했어요. 그동안 ‘온누리’를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요.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막바지까지 몰고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탁아가 나의 평생직업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도 던지게 됐구요.”

무언가 정리하는듯 했다. 잠시 우리사이엔 정적이 맴돌았다. 마른 침만이 요란스럽게 넘어가고 있었다.

“처음엔 좀더 대중적인 일을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탁아라는게 일상적인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그 일상이 활동가를 묶는 경우가 많지요. 속박감을 느끼게 되더라구요.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싶어요. 이후에 탁아를 하겠다는 전제가 아닌 상태에서 1년 정도 마음을 비우고 쉬면서 정리하고 새로운 다짐을 갖고 싶어요. 그러고 나면 탁아부분



낮잠시간 후 아이들과 함께 있는 정성희씨의 표정은 여전히 믿음직스러워 보였다.

도 평생직업으로 남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민의 무게가 육중하게 눌러왔다.

아이들과의 일상적인 씨름과 열악한 조건에서도 창조해왔던 활동.

그리고 전망을 찾아내야했던 과거 그리고 현재의 중압감이 그대로 옮겨져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다. 우울의 그늘이 드리워졌다. 일단 설명할 수 없는 연민을 꺼버리기로 했다.

“그러던데요. 1년만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10년은 간다던데. 정선생님은 2-3년이었으니 최소한 앞으로 20년은 더하시겠는데요. 음- 좀 납득하기 힘든게 있어요. 탁아활동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활동을 8년간 해오셨는데 거기에는 나름의 전망과 힘이 있었던 건 아닌지요. 그리고 고민이 많은 만큼 남다른 각오나 계획이 있으실텐데요.”

“전망과 힘이 없다는게 아니에요. 오해는 마세요. 제 개인적인 상태가 고민이 많고 정리가 안된 상태라 이번 인터뷰도 좀 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솔직한 현재의 위치를 되짚는다는 것으로도 의미가 있다 싶어요. 그건 그렇고, 온누리에 대한 애정이 많았어요. 지금도 그렇구요. 어떻게 하든 운영, 조직체계를 세워나가고 함께 고민하고 합의해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만이 제대로 지역 안에서 뿌리내리고 사업을 해낼 수 있다고 보죠. 이런 고민을 풀어나가고 해결하는게 남다른 각오와 계획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8년의 세월은 저만의 힘이 아니에요. 그동안 지역에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신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딱 부러지게 확신할 순 없었지만 오해가 있었던 건 사실이었다. 그의 끊임없는 고민 속에서 충분히 알 것 같았다. 그 모습은 신념을 가장한 패배의식과는 멀었다. 솔직하게 벗어던진 우리의 참모습을 찾으려는 몸부림이기 때문이다.

또하나의 희망으로 보았다면 역지일까?

아니다.

그래 좀더 이야기를 듣기로 하자. “갈증을 느꼈어요. 탁아일을 하면서 더욱 강한 욕구를 느꼈지요. 그건 좀더 대중적인 일을 하고 싶다는 갈증이죠. 그러면서 더욱 확신하게 되었죠. 정말 인간은 단순하지 않다는걸 말이에요. 자모들을 보면 얼마나 역동적이고

변화무쌍한지. 그것이 곧 변화의 힘이 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정말 확실한 공부였죠.”

쉽지 않은 생각이다. 탁아현장에서 일하는 교사들의 고민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교사들의 위치가 자모들에게 있어선 절대적이었던 이전과는 달리 변해가는 자모들의 모습에 어쩔 줄 몰라하고 실망하는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을 듯 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요지부동의 신념 - 자모들에 대한 철저한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걸까.

“사람에게 실망하고 활동을 그만 두는 이들을 보면 정말 속상해요. 변화보다 앞서가는 유연한 화동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럴 때만이 진정한 신뢰는 굳게 잡힐 거예요. 좀더 앞서서 고민하고 길을 열어주는 역할, 그 다음엔 대중들이 만들어가고 해낼 수 있다는 신뢰를 보내야 되는거죠. 그럴때 우리의 활동도 결국은 질을 담아낼 수 있다고 봐요.”

정성희씨의 말을 듣고 있자니 여러가지 생각이 오고 갔다.

그리고 딱 뿌리지게 확신할 수 있었다. 이제서야.

우울증의 근원을.

홀가분한 마음으로 몇가지 질문을 하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사실 글 쓸 생각을 하니 굉장히 갑갑했었다.

“탁아일을 하는 후배들에게 하실 이야기가 많을텐데요. 당부도 좋구요.”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데 정리를 해내지 못한게 선배로서 부끄러워요. 쉽게 그림이 그려지진 않지만 활동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봐요. 같이 합의해내는 노력과 자기 역할을 찾아서 해내는 프로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젠 더이상 전문성을 미뤄놓고 하는 활동은 안된다고 봐요. 이전엔 일하는 사람 중심만을 갖고 있었다면 앞으로는 일에 대한 중심도 세워야할 때라고 봅니다. 다시 노파심에서 말한다면 조직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과제를 찾아내고, 정열을 쏟을 때만이 무궁무진한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는 탁아의 장 속에서 당당한 주체로 서주길 바랍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결론으로 흘러갔다. 그렇게 무겁게 오고갔던 껴름직한 이야기들이 어느덧 힘있게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좀더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될 듯 했다. 적절한 절제의 선이라는 전제하에 짜여진 틀 속에 아이를 가두지 않고, 구속감을 주지 않아야 되다는 정성희씨의 교육관만 빼고 말이다.

“뭐니뭐니해도 탁아교사는 아이를 잘 키워야 해요. 백지위에 멋진 인생의 그림을 그리도록 힘껏 도와야되지요. 저같은 경우엔 어릴적 산과 들에서 뛰어놀았던 추억을 되살리면서 아이를 대하지요. 자연속에서 뛰어놀았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요. 그리고 아이들이 탁아소에 와서 행복한지 기쁜지를 늘 확인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 이야기가 나오자 끝이 없었다. 서로의 경험들이 쏟아져 나왔고 이미 난 기록장을 덮은 상태였다. 어느새 하나둘 아이들이 깨어 두런두런 이야기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그것도 잠시였다. 자활회의라며 모려오는 송실대 어린이사랑회 녀석들이 나타나자 놀이방은 시끌벅적 야단법석이 되었다. 반가운 인사를 뒤로한 채 서둘러 놀이방을 빠져나왔다.

....

양철대문을 나와 새로지은 큰 건물을 지나 쪽 나와,

야채가게가 있는 사거리를 지나,

늘어선 가게 앞을 빠져나와 고개슈퍼를 두고 왼쪽으로 나와,

길을 건너 '100'으로 시작되는 버스를 무조건 타고 구로역으로 향하고 있었다.

.....

탁아소 공간이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부모에게, 지역에서 열려진 공간으로 자리잡아야 되며 탁아는 결코 영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개념을 뿌리내려야 된다. 선진적인 모델을 만들어내고 지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변화의 주체로 남아있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며 조용히 그러나 힘있게 말을 마쳤던 정성희씨의 모습이 하루종일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청량리역에 내려 지하도를 빠져나오니 어느덧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그의 고민이 그의 것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점점 어둠과 함께 짙어져갔다. 정성희씨의 소중한 활동이 탁아사업에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그의 말처럼 함께 풀어낼 수 있는 해가 되길 빌어본다.

접하는 모든 이에게 보여주었던 참용기.

백지위임장을 정성희씨에게 감히 보내고 싶은 밤이다.

관 · 심 · 집 · 중

“탁아비용, 누구의 몫인가?”

‘탁아비용 부담’이라는 주제로 본 회 정책연구부에서 준비한 기획물을 [우리네 아이들] 3월호부터 연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탁아모델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에서부터 출발하여 미국의 탁아모델을 검토하고 그 안에서 그들은 탁아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지, 국가의 대응책과 그에 따른 문제점 등을 살펴보기 위해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번역, 정리하여 여러분께 선보일 정책연구부의 글을 기대해주시시오.

좋은 그림책 소개

『안녕 나는 너의 장난꾸러기야』 외 4권 (안녕 시리즈)

글, 그림 이형진 / 한샘출판사 / 각 권 4,000원

안녕? 내가 누구인지 아니? 지금부터 알아맞춰봐.
내 몸에는 동굴이 두 개.
음- 냄새를 아주 잘 맡고,
네가 거짓말을 하면 엄마는 나부터 혼 내고....
어떤 애들은 손가락으로 내 동굴을 마구 후빈단다.
아이 더러워!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니?
맞아, 나는 너의 귀여운 장난꾸러기 바로 코야!

이 그림책은 수수께끼 형식을 빌어 아이들의 호기심을 한껏 자극한다. 앞부분에 핵심적인 신체의 특징을 이야기해 주어서 대략 이게 뭐다 라는 정도는 알게 된다. 만약 이런 형태로 계속 이어간다면 시중에 나와있는 학습용 교재와 별차이가 없고 재미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그 신체 부분을 가지고 하는 행동, 부모의 행동, 아이의 있는 그대로의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마치 그 그림책 속에 아이 자신이 있는 것처럼 아이들은 느낄 것이다. 신체기관으로 표현되는 동굴한 모양의 그림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문장이 쉽고, 묻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어린 아이들도 금방 빨려들어 갈 것이다. 손, 입, 코, 그리고 아이들이 듣기만해도 까르르 웃는 엉덩이와 배꼽으로 5권의 책이 구성되어있다.

3,4세를 위한 그림책, 특히나 우리나라 창작 그림책이 없는 현실에서 이 그림책의 출현은 아이들을 아주 기쁘게 한다. 수수께끼에 재미를 느끼는 5-6세의 유아도 아주 좋아한다. (3-4세 이상)



좋은 그림책 소개

보리 아기그림책 세밀화 시리즈 1, 2

이태수 세밀화 / 보리출판사 / 세트당 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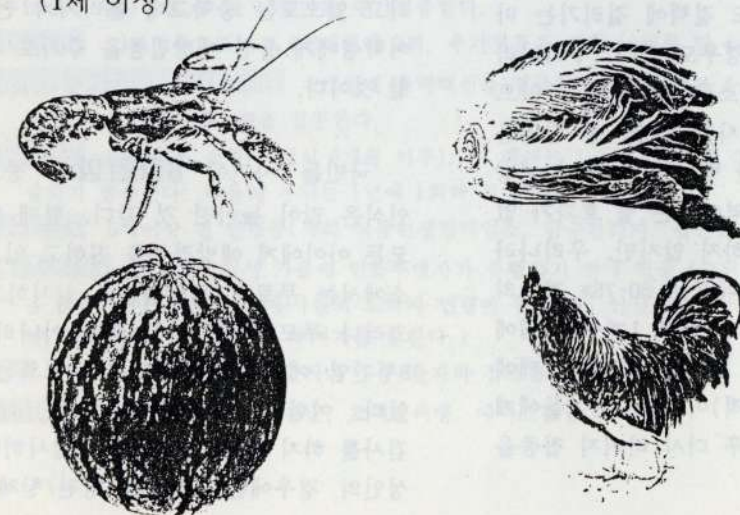
겉장을 넘기면 오른쪽에 세밀하게 그린 그림이 눈에 들어온다. 세밀화는 사물을 세밀하게 그려 그 사물의 구조와 느낌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는 그림이다. 어린 아이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사물그림책이라 할 수 있는데 대충 형태만 비슷하게 그려 사물의 이름을 커다랗게 (친절하게도 영어까지 쓴 것도 있다) 써 놓은 그림책과는 다르다. 동물 이름을 익히는 식의 그림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가 지닌 독특한 느낌과 사물자체를 정확히 볼 수 있는 그림책이다.

이 책에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하는 과일(주세요, 주세요)이나 우리나라에서 살던 동물(산에서 사는 동물)이 실려있다. 아이들이 직접 만지고 맛볼 수 있는 우리나라 과일이 실려있음으로써 생활에서 확인하는 기회를 갖을 수 있다. 또 캥거루, 기린, 코끼리가 아닌 호랑이, 다람쥐 등 우리 옛이야기에 나오는 우리나라 동물이 나오므로 친근함과 우리 정서가 배어 있다.

책의 글은 "이게 뭐야?" "싫어, 싫어" "아니, 아니" 등 이제 막 말하기 시작하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로 글을 이어가 이해가 쉽고, 사물그림책이지만 줄거리가 있어 조금 큰 아이들도 좋아할 책이다.

세밀화 시리즈 1은 가을에 먹는 과일, 몸에 좋은 채소, 집에서 기르는 동물, 산에서 사는 동물로, 세밀화 시리즈 2는 우리가 먹는 곡식, 여름에 먹는 과일, 들판에 사는 곤충, 물가에 사는 동물로 이루어져 있다.

(1세 이상)



■ 건강하게 삽시다

소아예방접종과 관련되어 알아두어야 할 사항

김철환 /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번호에는 소아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알고 있어야 할 몇가지 중요한 점을 알려주고 싶다. 소아예방접종 스케줄이나 예방접종 후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가지 매체를 통해서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는 교사나 부모를 비롯한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겠다.

우선 **결핵**에 대해서 몇가지 점을 지적하고 싶다. 어떤 엄마중에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비씨지(BCG)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자기 아이에게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비씨지 예방접종을 받은 아이들에게서 목의 임파선이 붓고 고름이 생기는 것을 보고 부작용이 두려워서 예방접종을 꺼리기도 한다. 어떤 똑똑한 엄마는 비씨지 예방접종을 받아도 결핵에 걸리기는 마찬가지라고 알고 있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결핵 감염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지나가는 사람 100명 중 한명은 결핵환자일 정도로 흔한 병이다. 비씨지 예방접종은 결핵이 드문 지역에서는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처럼 결핵이 흔한 지역에서는 60-75% 정도의 예방효과가 있다. 따라서 생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비씨지 접종을 받아야 하고, 어깻에 비씨지 접종의 반흔(흔적)이 없는 아이들에게는 결핵반응검사를 한 후 다시 비씨지 접종을 시켜야 한다.

그다음 문제가 되는 것은 **풍진**이다. 우리나라에서 풍진 예방접종은 1978년 처음 시작하였으나 본격적으로 실시한 것은 1982년부터이다. 풍진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풍진의 발생은 현저히 줄고있으나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신이 가능한 여성 중 풍진을 이길 수 있는 항체가 없는 사람이 20-30%나 된다. 그런데 풍진은 산모가 임신 8주 전에 걸리면 태아의 50-80%에서, 임신 중기에 걸리면 태아의 20-30%에서 '선천성 풍진 증후군'이라고 하는 심각한 선천성 기형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병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가임연령에 있는 사람 중 풍진 예방접종을 받은 적이 없는 1978년 이전에 태어났거나 풍진 예방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사람은 모두 풍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중학교에 올라가기 전에 모든 여학생에게 풍진 예방접종을 추가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 사이에 **B형간염**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많이 높아진 것 같다. 현재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예방접종을 권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 중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도 B형간염 예방접종을 받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15세 이하 소아에서는 검사를 하지 않고 3회 접종을 실시하면 되고, 성인의 경우에는 B형간염 항원/항체 검사를

받고 둘 다 없는 경우에만 3회 예방접종을 받으면 된다. 성인이나 소아나 B형간염에 대해서는 항체가 있는지 확인해서 필요한 경우 꼭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우리나라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암 중 2위인 간암과 사망원인 5위인 만성간질환을 예방하는 길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요즘 몸살감기를 예방하고 폐렴을 예방한다고 잘못 알려져 있는 예방접종이 있다. 소위 독감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폐렴 예방접종**이 바로 그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런 예방접종은 소아나 일반 성인에서 접종할 필요가 없다. 인플루엔

자 예방접종은 '맞아서 뭐 해로울 것이 있느냐?'는 의사들의 안이한 태도와 의료의 상업성, 그리고 일반인들의 무지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인플루엔자나 폐렴 예방접종은 55세 이상이나 심장병, 만성폐질환 등의 만성병을 갖고 있는 사람만 접종을 받으면 되는 예방접종이다. 이것을 마치 독감도 예방하고 폐렴도 예방한다고 생각하고 맞을 필요가 없다. 현혹되지 말기를 바란다.

결국 다음과 같은 전체 예방접종 스케줄에 따라 예방접종을 모두 받으면 되고, 그외에는 담당의사가 특별히 추천하지 않는 것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예방접종약(백신)에 따른 소아예방접종표

- 비씨지** 생후 1개월 이내에 접종, 접종 2-3개월 후 투베르쿨린 반응에서 음성이면 재접종.
- B형간염** 1차 접종은 접종개시일, 2차접종은 1차접종 후 1개월, 3차접종은 1차접종 후 제9개월에 따라 2개월 혹은 6개월에 한다. 추가접종은 매 5년마다 시행을 권장한다. 산모가 B형간염 보균자인 경우에는 출생 직후 가능한한 빨리(12시간 이내) 면역글로불린을 접종부위를 달리하여 접종하고 2,3차 접종은 백신에 따라 시기를 정한다.
- 디파티** 기본접종은 2,3,6개월 3회, 추가접종은 18개월, 4-6세에 입학전에 실시하고 Td를 14-16세에 추가접종 후 매 10년마다 추가접종한다.
- 소아마비** 기본접종으로는 2,4,6개월에 3회, 추가접종은 생후 18개월 및 4-6세에 한다.
- 홍역, 볼거리, 풍진(MMR)** 9개월에 홍역백신을 접종하고(유행시에는 6-7개월 부터 할 수 있다.) 15개월에 MMR을 접종한다.
- 일본뇌염** 3세 이후 소아(유행시 6개월 이후), 첫 해에는 1-2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며 6월 말까지 접종한다. 다음해 부터는 1년에 1회씩 접종한다.
- 장티푸스** 5세이상 전 연령층(특히 식품위생접객업소, 급수관리자, 집단급식 종사자 등)
-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에서 가을에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기 전에 접종.(고위험군은 심폐질환을 앓는 소아나 성인, 수용시설의 노약자 연령에 관계없이 신장질환, 당뇨병, 면역결핍, 면역억제제 투여자를 말한다.)
- 수두** 수두에 이환될 위험이 있거나 수두 환자와 접촉될 가능성이 있을 때
- 폐렴 구균** 2세 이상의 신증후군, 호지킨씨병, 에이즈감염 환자.

■ 시사말뚝이

“우리의 존재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편집부

『우리들은 가난한 나라에서 왔지만, 우리들의 존재 자체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임금을 제 손에 직접 주세요, 제발 때리지 마세요, 자유롭게 공장 밖으로 나다니고 싶어요.』

새해를 맞이하는 다짐으로 평화와 희망을 나누는 벽두, 명동성당의 농성장에서 들려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외침은 우리 스스로를 못내 부끄럽게 했다.

88년부터 우리 주변에서는 머리 색깔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른 이방인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게 되었다. 이태원이나 시청 앞에서 봐왔던 서구인들과는 좀 다른, 외화벌이의 관광 손님들은 아닌 것 같았다. 하지만 어차피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니까 그들이 필요하고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는지,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어린이집의 어머니들이 일하는 영세 공장에서도 이들을 보게 되었고, 알고 보니 집에는 처자식이 있는 사람도 많고 그 나라에서 일류교육도 받았다는데, 왜 타향에 와서 고생을 하나 싶기도 했다. 그렇게 한 직장의 식구로 지내는 외국인 노동자들, 그들의 현주소에 대해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얼마되지 않았다.

95년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중국, 필리핀, 베트남, 네팔, 파키스탄 등지에서 온 외국인 산업연수생은 총 19,034명이며, 외국인 불법 체류자는 51,435명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공식 통계 외에 정부가 파악하지 못하거나 은폐하고 있는 부분을 합하면 13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기업주등 재계에서는 이른바 3D업종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력을 들여오기 시작했다. 왜곡된 교육제도 및 노동시장구조로 비롯된 잘못된 인력 배분에서 오는 인력 부족을 저임금 단순노동력을 쉽게 조달하겠다는 안이한 발상의 『편법적 외국인 노동력 도입』으로 대처한 것이다.

합법적 외국인 연수생이 들어오는 통로는 이러하다.

상공자원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는 곳에 외국인 취업연수생의 부분을 일임 시켰고, 이들 산하에는 23개의 국내 인력회사와 외국인 노동자 채용업체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인력회사들과는 해외 현지 송출 기관이 연쇄 고리로 이어져 있다.

취업 연수생의 노동 조건은 어떠한가.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기준을 보면 월 급여 210 - 260불, 일일 8시간(주 44시간)

노동, 숙식 제공, 산재시 개인 상해 보험 적용(1500만원 한도내), 질병 치료 보험 가입. 도입 후 취업 전 교육 실시. 연수 기간 1년이며 1년까지 재연장 가능.

현지 모집광고는 월 급여 450-500불, 기술 습득 가능, 숙식 제공, 일 8시간(주 44시간) 노동, 생필품, 의료 서비스 회사 무료 제공, 합법 취업 비자 입국 가능.

이런 조건을 보고 신청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출하는 경비는 최소 2000불(인력 회사에 1300불, 개인 경비 700불)에서 최고 3500불(인력회사 3000불, 개인 경비 500불)에 이른다.

그런데 그들이 한국 도착 후 알게 되는 처우는 월 급여 210불, 노동시간 일일 8-12시간, 생필품 미제공, 회사 밖 외출금지, 입금은 매월 인력회사가 공장으로 부터 직접 수령 80%는 본국으로 송금 20%는 출국 때까지 보증금으로 보관하겠다고 일방 통고, 매월급에서 11불씩 인력 관리비로 공제. 1-2일간 작업장에서 한국말로 오리엔테이션하는 것이 고작이다.

현행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제도는 이름만 『기술연수』일 뿐, 인권 침해 사태등 안이한 발상이 빚어내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은 『노예 노동 제도』라 지탄받고 있는 것이다.

불과 한 세기도 지나지 않은 우리 선조들의 아픈 고난의 역사가 생생하다. 힘없는 약소 국가였기에, 이방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기에 당하는 차별을 우리는 경험한 바 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다시 되풀이시켜야 하다니...

2월 초 정부는 이들 외국인 산업 연수생에게 근로기준법 상 최저임금 조항을 적용하는 등 외국 인력의 지위 향상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 이달 중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어느 정도 외국인 근로자 정책에 대한 전환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만 이같은 개선책에 대해 기업체측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며 반발하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실행 과정에서 일부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현재 불합리한 정책에서 오는 많은 부작용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의 급선무이겠으나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미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기에 문화 사회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다.

그 중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도 생각해 봐야잖을까.

이들의 자녀 보육이 하나의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있는 이들 이지만 국내인들과의 결혼등으로 자녀를 갖게 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는데 아이들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우리과 같은 지역 주민으로 더불어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그들이 건강한 노동 조건에서 일하도록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가는 것, 그들의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이 함께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다급한 현실로 닥치고 있는 일이다.

바야흐로 우리 지역 보육시설의 문을 봄기운 맞이하듯 활짝 열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나라의 대소에 관계 없이, 서로의 피부색에 관계 없이 똑같이 하나의 인간으로 부름 받는 내일의 주인들을 키워내는 일 우리 선생님들의 몫인 게라.

■ 글마당

♣ 탁아소별곡

‘용기종기’에서 생긴 일

이야기 하나 - 혜원의 아기

4,5살된 여자 아이들은 아기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래서 귀가시간에 아기를 업고 오는 현덕이 엄마를 무척 좋아한다. 아이들이 아기를 귀여워하는 것은 어른들이 느끼는 것과 같은 것일까.

하여간 저녁에 오는 현경이는 그냥 갈 수가 없다. 엄마등에서 내려져 자신보다 조금 큰 형아들한테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조심성이 적은 애정행위(뽀뽀해주고, 안아주고, 만져주고...)를 받는다. 그러나 이내 울음이 터지고, 현경이가 다시 엄마등에 업혀서 행복해하면 우리 친구들은 아쉬워하며 서로 엄마에게 아기를 사달라거나 얻어달라달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하루는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게 되는지를 아이들에게 얘기해주었다.

그러던 어느날 매일 엄마에게 아기 하나만 낳아달라고 조르다 혼나기만 하던 혜원이 아주 만족스러운 해답을 찾은듯한 표정으로 나타났다.

선생님 : 혜원이 무슨 좋은 일 있었니?

혜원 : 예. 선생님..., 나요..., 결혼할거예요!

선생님 : 누구랑?

혜원 : 인근이오빠(7세, 친오빠)랑요.

선생님 : 왜?

혜원 : 아기를 낳을거예요.

선생님 : 그런데 왜 오빠랑 해, 아빠랑 하지 않고.

혜원 : 안돼요. 아빠랑 결혼하면 큰 애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깐 인근이오빠랑 결혼해야 작은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선생님 : 왜 그렇다고 생각하게 되었지?

혜원 : 아빠는 크니까요.

선생님 : !!!

이야기 둘 - 영석이의 기적

늘 낮잠을 5시나 6시까지 못자면 난리가 나는 영석이가, 하루는 4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스스로 눈을 부시시 부비며 일어나오는 것이 아닌가.

선생님 : 웬일이니? 별일이네... 영석이가 벌써 일어나다니,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와, 이건 “기적”이다. “기적”이야.

근영이 : 영석이는 영석인데, 영석이는 ‘기저귀’ 안했어요.

근영이의 말에 선생님이 크게 웃자, 영문을 모르는 채 따라 웃는 우리 친구들. 덕분에 영석이는 남아있던 잠마저 다 달아나버렸다.

이야기 셋 - 꽃분의 헛갈림

엄마랑 목욕을 갔던 꽃분이는 스포츠 머리모양을 한 어른이 여탕에 들어오자 이상하게 여겨 뚫어지게 쳐다보며

꽃분 : 엄마, 저 아저씨는 왜 여자들이 목욕하는데 들어왔어?

엄마 : 꽃분아, 자세히 봐.

꽃분 : (그 사람이 열심히 옷 벗는 것을 보더니)

어, 엄마. 저 아저씨도 엄마처럼 찌찌가 있다.

엄마 : 그래, 남자가 아니고 여자야.

꽃분 : 그런데 왜 머리를 남자처럼 잘랐어?

목욕을 마치고 나와 집에 가는데 앞에 가던 어떤 어른이 머리를 묶었는데 담배를 피우며 간다.

꽃분 : 엄마, 왜 아줌마가 담배를 피워?

엄마 : (빨리 걸어서 앞서 걸으며) 꽃분아, 자세히 봐.

꽃분 : 저 아줌마 턱에 수염이 있다.

엄마 : 아줌마가 아니고 아저씨야.

꽃분 : 그런데 왜 머리를 묶고 다녀?

■ 우리들의 목소리

두 돌 지나 들어온 내 딸,
벌써 학교 갈 나이가 되었으니...

이문섭 / 아이사랑어린이집 자부

지난 12월 어느날이었다.

어설픈 솜씨지만 정성스레 꾸민 작은 초대장을 아이로부터 받았다.

엄마, 아빠를 모시고 준비한 장기들을 펼치는 재롱잔치를 열겠다는 내용이였다. 아이를 탁아소에 보내기 시작한 후 매년 받아보던 초대장이었건만 올해의 초대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

이제 더이상 우리 아이의 재롱잔치를 탁아소에서 볼 수 없기 때문이었다. 어느새 6년 여의 세월이 흘러 '아이사랑'을 떠나야 할 때가 된 것이다. 바로 얼마전 아이가 다니던 유치원에서 보았던 졸업잔치처럼 보던 사람의 박수가 크지도 못하고, 부모들의 비어져간 주머니를 달랠 만큼의 고급스런 연출도 없고, 아이들답지 않는 지나친 연기로 도배도 되지않은, 그저 식구들 앞에서의 작은 재롱이겠지만 보는 사람이나 보여주는 이나 모두 하나가 되어 어우러질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초대장 구석구석에서 배어나고 있었다.

몇일 후, 고대하던 그 날이 왔건만 직장일로인해 잔치 시간이 되도록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하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을텐데 라는 조바심이 직장보다 더한 용기를 주었고

자리를 박차고 뛰어갈 수 있게 했다. 선생님으로부터 준비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고 아이들의 재롱이 시작되었건만 그 위로 또 하나의 그림, 지난 몇 년간의 잔치들이 겹쳐지면서 잔잔하게 옛 기억들이 더듬어지고 있었다.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나만의 아이'들을 '우리의 아이'들로 선장시켜 주신 선생님들의 지난 여러 해 수고와, 만났다 헤어지고 했던 아빠, 어마들의 탁아소를 바라보던 미더운 눈길들이 이제 아이를 이곳에서 떠나보내야 하는 내게 커다란 박탈감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아이들의 좁디 좁은 놀이공간을 보상하고자 일요일의 곤한 낮잠도 마다하고 모여 모래 놀이터를 꾸미던 일, 아이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더듬거리던 솜씨로 풀 반, 벽지 반 열기설기 도배를 하던, 지나간 아빠들의 모습들이 이제 이곳을 떠나도 잊지 못할 고마운 추억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생활을 위해 엄마가 직장을 다니기로 결정한 후, 막막했던 육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염려섞인 시도를 했던 것이 었 그제 같은데 지금에 와서는 떠나기가 이렇게 아쉬운 공간으로 변할 줄이야.

졸업생으로 동생들에게 당부하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제 이곳은 떠나는 곳이 아니라 더욱 함께 해야 할 곳이야'라는 다짐을 갖게 하는 '아이사랑'

늘 마음에만 두고서 실천하지 못했던 아빠들의 작은 모임이라도 꾸며 작은 힘이나마라도 되어야 한다는 숙제를 가슴에 안으며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고 싶다. "아이사랑, 내 사랑.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아빠들도 함께 해요."라고.

수련회=애정확인!!!

신서영 / 오손도손애기방 교사

남편과 언니에게 어렵고도 힘들게 애기를 해서 아이 둘을 맡기고 수련회에 갈 수가 있었다. 이른 아침에 올면서 인사하는, 이별을 싫어하는 두 아이와 곱지 않은 얼굴로 바라보는 남편의 시선을 받으며 약속장소로 향했다.

둘째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일을 다시 하기까지가 1년 반의 시간이었다. 수련회를 오랫동안 참가하는 것이다. 참으로 태만한 교사였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보니 전세버스 약속장소인 애경백화점 정문이다. 약속시간이 훨씬 지나서야 대절된 차가 도착했지만 정원 초과로 안산 교사들은 다른 버스를 이용해야 했다.

출발하면서 시계를 보니 벌써 프로그램 시작해서 그중 시사 분석을 하고 있을 시각이었다. 아무쪼록 빨리 도착해야 할텐데...

우여곡절 끝에 우리의 도착지인 부여에 도착해서 제일 처음 우리를 반갑게 맞아준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연화무늬 보도블럭이다. 너무 예뻐서 밟기 조차 미안한 연화무늬 보도블럭을 따라서 부여 유스호스텔을 찾아갔을 땐 이미 오후 프로그램이 거의 끝날 즈음이었다.

우리 지역 교사들은 방 배치를 받고 저녁식사를 한 후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다. 모든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마다 진한 인간애와 교사들의 진실된 삶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역에서 연합회의 조직적 전망이나 애정어린 깊은 고민들을 교사들이 말할 때면 난 감이 뒤졌을 뿐 아니라 동료들의 말을 이해하기도 힘들었는데, 수련회 중의 [조직발전 논의]시간을 통해서 지탁연에 대한 교사들의 애정과 나 자신의 애정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느슨한 듯 딱딱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교사들에게는 정신적으로 꼭 채워준 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눈바람이 휘몰아치는 광장에서의 공동체 놀이는 왜 그렇게 신이 나던지... "손을 잡고 왼쪽으로 빙빙 돌아라"를 부르면서 놀이에 열중할 땐 어찌나 긴장되고 열심히 했는지. 그 흡인력은 정말 대단하였다. 공동체 놀이시간이 끝나고 난 뒤 휴식시간을 이용해 안산지역 교사들과 먹었던 파전과 막걸리 맛 또한 정말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마지막 날. 눈 쌓인 광장에서의 눈장난과 산책은 거의 한 폭의 동양화 수준이고...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눈발을 헤치고 서울에서 부여까지 아침 첫차를 타고 오신 외부강사의 진행으로 이루어진 성격유형 검사는, 서로가 미처 모르고 있었던 개인의 능력과 한계를 깨닫게 해준 뜻깊은 시간이었다. 16가지의 성격유형 중에서 내게 특히 인상에 남는 형이 있다면 INTP(편주:최현숙 본회 회장이 이 유형에 속함)이다.

2박3일의 일정이 끝나고, 부여에 아쉬움을 남긴 채 '95년의 많은 활동을 기대하며 가슴 저리게 보고 싶은 아이와 남편이 있는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어른들의 『인형놀이』

박인혜 / 극단 [인형놀이] 창작단장

작년 이맘때쯤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일을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처럼 만나 서로 사는 이야기를 하다가 직업은 못 속여 아이들 이야기를 했다. 교육문제부터 애들 문화까지 하다가 드디어는 엉뚱한 일을 하나 벌이기로 했다. 인형극단을 해보기로. 국적없는 서양문화에 마구 물들어 가는 아이들을 위해 되도록이면 우리 고유의 이야기를 담아 창작극을 해보자는 결의까지 담아서.

첫번 공연은 튼튼이어린이집에서였다. '돼지불알'이라는 -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 노래를 동화로 만들어 들려주고, '후회한 원숭이'라는 제목의 창작극을 보여줬다. 초롱한 눈망울로 예쁘게 앉아 무대를 바라보는 애들과 마주하고 공연하는 동안 맞선 자리에 처음 나간 것 마냥 가슴이 떨렸다. 이렇게 인형극단을 시작한 지가 벌써 일년이 넘었다. 그동안 구로지역 놀이방을 다니며 공연할 때마다 인형들과 악수를 하며 좋아서 어쩔 줄 몰라하는 아이들을 보면 보람이라는 말보다는 가슴이 찡해 옴을 느꼈다. 작은 것에 감격할 줄 아는 아이들의 마음이 너무 예쁘기에.

사상 최대로 무더웠던 지난 여름, 8월 기획 공연을 앞두고 우리는 휴가까지 반납하고 강연습을 했다. 인형제작은 물론, 어떤 날은 새벽 5시까지 음성녹음에 매달렸다. 옆방에 소리가 들릴까봐 창문도 못 열어놓고, 잡음이 섞일까봐 선풍기도 못 틀 채로 비지땀을 흘리며 녹음

해야 했다. 비록 30분짜리 공연물이지만 아줌마 배우에서 대학생 배우까지 모두 몸을 아끼지 않고 연습했다. 열심히 애쓴 덕에 8월 과천공연은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공연 두가지 있다. 그 하나로 '어머니 큰잔치' 공연 때였다.

가을학기 들어 서로 생업에 바빠서인지, 연이은 공연에 지친 탓인지 연습이 잘 안됐다. 공연날 배우들은 평소 잘하던 동작도 다 빠트리고, 공연장도 갑자기 큰 곳으로 바뀌어 준비한 녹음기로는 소리가 잘 안들렸다. 뒤에서 웅성대며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는 듯한 아이들의 반응을 보니 눈앞이 아찔했다. 며칠 뒤 있을 여성복지회관 주최 인형극 공연이 걱정됐다. 취소라도 하고 싶었으나 도리가 없었다. 아이들과의 약속인데....

드디어 공연 날. 두번 공연에 5백명의 아이들이 개미군단처럼 속속 몰려들었다. 그 많은 아이들이 탄 눈을 팔지 않고 인형극을 봤다. 맨 뒤에서 목이 빠질듯이 빼고 보는 아이들, 신나게 박수 치며 노래를 따라 하는 아이들, 공연도 중 음악에 맞춰 무대 앞에서 춤추는 아이들까지 공연내내 아이들은 마냥 즐거워했다. 새삼 좋아서 하는 일도 철저한 책임이 따르지 않으면 안하느니만 못하다는 걸 절절히 깨달았다.

1년전 겁없이, 그러나 소박하게 시작했던 인형극단. 겉보기엔 너무도 조촐한 잔치상이지만 나름대로 맺어 온 열매가 녹아 있기에 우리는 기꺼이 새 잔치상을 준비하고 있다. 일년전 맞선 자리에 나간 것 같던 그 심정으로, 어린 관객들을 만날 일에 가슴 설레며 오늘도 힘차게 연습실을 들어선다.

현장에서 날아온 편지 ♥ ♥ ♥

지탁연 허현숙 회장님, 신현희 사무국장님, 오운정 교육부장님, 함미혜 문화홍보부장님, 그리고 서정은 정보사업단장님.

그동안 무척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수련회 첫날 저희 구로지역에서 인시총회를 하던 중 중앙에서 힘들게 일하시면서도 선물 하나 제대로 받지 못하시는 중앙의 일꾼들에게 저희 구로지역에서 1년에 두어번 정도 선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해서,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이결듯 저희의 정성을 드립니다. 그렇게 좋은 것은 못되지만 따뜻한 겨울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회장 두 분은 지역에서도 속하시고 탁아소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욱 더 열심히 지탁연을 위해 일해주시길 바라며, 저희들 힘닿는 데 까지 지탁연을 위해, 지탁연의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1995년 1월 구로지역위원회 일동

* 구로지역위원회에서 본 연합회 사무국 일꾼들에게 보내주신 조끼는 무척이나 고맙게 받았습니다. 덕분에 지탁연 사무국 유니폼이 생겨나서 여성평화의 집에 거주하는 다른 단체 실무자들의 부러움을 한껏 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최선희 재정국장님 애기가 빠졌더군요. 재정사업으로 교사들과 자주 만나지 못하는 최선희 국장님께 짧은 편지 하나 띄우면 어떨까요? 저희만 받아서 죄송하거든요.

여하튼, 여러분의 애정을 영양제 삼아 앞으로 더욱 여러분과 함께 우리 아이들과 어머니들의 권리를 위해 열심히 활동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사무국 모두-

■ 탁아계 풍향

▷ 「한국보육정보연구소」 개소

본 회 부설 「한국보육정보연구소(소장 장미경)」가 보육사업 관련 제반자료와 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기본 취지로 하여 문을 열었다.

그간 보육사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본회는 보육사업 활성화정책을 견인함으로써, 보육시설 및 이용자, 관련 연구자들의 증가, 관련자료의 증가, 신속한 정보 제공 요구의 증가추세가 이어질 것이라 예상하고 준비한 것에 따른 것이다.

6개월간의 준비를 해 지난 1월에 운영을 시작한 「한국보육정보연구소」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전국 보육시설 안내'를 주요내용으로 한 "보육시설 및 보육사업 정보"를 4월중 주요 PC통신망에 서비스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의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훈련원 및 관련학과와 상시적인 연결을 통해 보육시설에 종사자를 알선하는 사업을 개시, 현재 신청을 받고 있다.

본 연구소의 자료 및 정보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직접 이용하거나 PC통신망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문의처 : (우)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1동 38-84 B1.

지택연 부설 한국보육정보연구소

문의전화 : 02)268-3954

02)271-1547~9

▷ 발달지연 아동교실

아주대 병원 재활의학과는 3층 회의실에서 발달지연 아동의 가정치료를 돕기 위한 강좌를 연다. 매달 둘째, 넷째 목요일에 실시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문의 : 0331) 219-5591

▷ 이화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유아교육 행정직 전문강좌 수강생 모집

개설강좌 과정명: 유아교육 행정직

교육기간: 1년

교육대상: 유아교육행정가(유아교육기관
의 교사, 원감, 원장, 설립자에
한함)

모집인원: 80명

원서교부 및 접수: 2/16(목)-28(화)

오전 10시-오후 4시

접수장소: 이화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교학부(경영관 1층)

문의 : 02) 360-3111-5

▷ 서울 시청.구청 직장탁아소 설치

서울 시청 본청과 산하 구청에 탁아시설이 생긴다. 3월 10일 개원예정으로 남녀 직원 자녀를 출생 직후부터 6세까지 보육하게 되며 수용인원은 30여명이라고 한다.

운영시간 :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12시간

보육비 : 24개월 미만은 월 17만원

3세 이상은 8만8천원

▷ 인형극단 단원모집

지택연 회원어린이집에 무료순회공연도 하고, 어머니 큰잔치를 빛내준 바 있는 극단 「인형놀이」에서 함께 일할 배우들을 모집한다.

신나고 재미있는 인형극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새로운 이들의 발길을 기대한다.

문의처 : 809-3396 극단 「인형놀이」

▷ 효과적인 부모역할 훈련

(주)대교는 초, 중, 고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 대상으로 2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 「효과적인 부모역할 훈련」을 실시한다.

문의 : 02) 528-0075-9

▷ 영유아 놀이 무료강좌

엄마랑 놀이 아카데미는 10개월 -5세 사이의 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이달 28일과 3월 2일 「영유아의 놀이와 발달에 대한 놀이 무료강좌」를 연다.

매월 오전 11시는 36개월 이상인 유아, 오후 1시는 10-24개월, 오후 3시부터는 24-36개월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문의 : 02)401-4885

▷ 자폐아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청소년 대화의 광장」은 1월 19일부터 3월 9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4시에 '자폐 경향이 있는 아동을 둔 부모를 위한 집단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문의 : 02) 253-3011-2

▷ 보육교사 훈련원생 모집

서울YMCA는 고교 졸업 예정자 및 고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오는 4월 개강하여 1년과정으로 진행되는 「보육교사 훈련원생」을 모집한다.

보육교사 2급 자격 인정, 교재비를 포함하여 수강료는 71만원이다.

문의 : 02) 511-7787

▷ 치료교육연구소 개소

한국어린이육영회(회장 이정환)에서는 지난 1월 17일 장애아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위한 치료교육연구소(소장 김양희)를 개소했다.

치료교육연구소는 치료교육면에 치중을 하며, 치료교육 방법면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며 장애아 부모대상의 교육도 실시된다.

문의 : 413-1010

<1,2월 연합회 구비 도서/자료 목록>

월간유아 95.1월호 / (주)한국유아교육원
 월간유아 95.2월호 / (사)한국유아교육원
 동화읽는 어른 32호 / 어린이도서연구회
 월간 보육 95년 1,2월호 /
 (사)한국영유아보육시설연합회
 인천시 민간보육시설연합회 제3차 총회자료
 집 / 인천시 민보련
 성동민보련 소식지 2호 / 성동구 민보련
 열린 세계 평등한 사회(문민정부 여성정책
 의 성과와 현황) / 정부장관(제2)실
 지방의회와 여성유권자 (여성을 지방의회
 로) / 한국여성개발원
 일하는 여성 22호 / 한국여성노동자회의회
 건비연 1989-1994 / 서울YMCA
 청소년을 위한 좋은 비디오 1994, 겨울 /
 서울 YMCA 건전비디오문화를 연구하는 시민들
 의 모임
 노동자신문 95.1.31
 들소리신문 95.2.5
 개혁정치 6호 / 민주개혁정치모임
 유아교육신문 94.2.21
 한국YMCA소식 94.12월호 /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과 사회 겨울 제5호 /
 (사)한국환경, 사회정책연구소
 통일샘 95.1월호 /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병원노동자신문 95.1.16 /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소비자시대 1995.1월호
 한국여성연구회 회보 제41호 /
 한국여성연구회
 지역환경통신 제9호 /
 내일을 위한 지역환경연구소
 가정상담 95.1월호 /
 (사)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들소리신문 95.1.22
 노동자 신문 95.1.20
 노동자 신문 95.1.27
 서울시청뉴스 95.1.16

서울시민신문 94.12.21
 주간 해피타임즈 94.12.21
 들소리신문 94.12.25
 다비타의 집 94년 11,12월호 / 다비타의 집
 해피타임즈 95.1.11
 해피타임즈 95.1.18
 시민체육 1995.1월호
 기독교신보 95.1.28
 서울시청뉴스 95.1.26
 현장 소식지 제10호 / 극단 현장
 함께 가는 여성 / 함께하는 주부모임
 기독교신보 95.2.11
 산보센터소식 제10호 /
 산업보건종합센터설립추진위원회
 병원노동자신문 95.2.10 /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학부모신문 95.2.6 /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노동자신문 95.2.14
 서울시청뉴스 95.2.9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95.1.27 /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모임
 <논문, 연구집>
 나이로비여성발전 미래전략과 우리나라 여
 성단체활동 / 한국여성개발원
 탁아정책 형성과정에 나타난 모성이데올로
 기 영향에 관한 연구(석사논문) 95.2월 /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유정은
 이밖에도 해송아기동지, 햇살농이방,
 소망탁아방에서 정성이 담긴 회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연합회에 귀한 자료와 각종 발행물을
 보내주신 여러 분과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참, 연말연시나 이곳저곳에서 연합회로
 카드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기쁘게 잘
 받았구요, 받은 카드로 사무실을 멋지게 꾸며
 수 있었습니다.

■ 소식과 소식

연합회 소식

- '95년 교사 겨울수련회 및 제 10회 정기총회 개최

지탁연 회원 어린이집 교사들을 대상으
 로 한 '95년도 교사 겨울수련회 및 제10
 회 정기총회가 부여유스호스텔에서 1월
 3-5일 2박3일간 진행되었다.
 이번 수련회는 연합회의 사업방향 논의
 와 총회를 중심으로 시사분석, 공동체놀
 이, 아동교육발전을 위한 소모임 제안과
 그림책에 대한 강연, 성격유형검사 등이
 120여명의 교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자리로 진행되어 었다.
 특히나 올해의 수련회는 참가한 교사 전
 원이 연합회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더
 높힐 수 있는 자리여서 이후 연합회의
 활동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 자리가 되었
 다.

- 전국 지역대표자 합숙 진행

전국 신임지역대표자 합숙이 송실대 사회
 봉사관에서 2월 13-14일 이틀동안 진행되
 었다. 서울, 경인지역을 비롯하여 전주,
 군산, 부산 등지에서 모인 13명의 지역대
 표자들이 모인 가운데 이루어진 합숙은
 총회에서 위임된 사안처리와, 올 95년도
 의 사업계획, 예결산 심의가 논의되었다.

- 자활연대회의 겨울합숙 가져

2월 9-11일 2박3일간 강촌에서 자원활동
 가 겨울합숙이 진행되었다. 4개 학교 11
 명이 참석하여 작년 여름에 비해 참가자
 는 감소하였으나, 지탁연의 역사와 전망
 (최현숙 회장 강연), 아동교육실기, 자
 원활동워크샷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자
 원활동가의 활동과 위상에 대한 고민들
 을 한층 더 높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 서울시 민보련 드디어 출범

민간 보육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연합체
 가 결성되었다.
 1월 17일(화) 오후 2시, 송실대 사회봉
 사관 백마강홀에서 서울시 민간.가정보
 육시설연합회 창립총회 및 대회가 진행
 되었다.
 민간.가정보육시설 원장과 보육교사, 기
 타 보육에 관심있는 이들이 함께 한 이
 날 행사는 1부 창립총회와 2부 창립대회
 축하잔치로 이루어졌으며, 전국 각지에
 서 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 구성을 준
 비하고 있는 이들의 축사로 민간보육활
 동의 미래를 보다 활기차게 열었다.
 서울시 민보련의 창립으로 한층 그 열기
 를 더한 보육사업은 이제 2월 24일 예정
 인 전국민보련의 출범을 통해 더욱 내실
 있는 활동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 영보법시행령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1월 23일 영유아
 보육법시행령중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
 고를 하였다.
 이번 입법예고는 직장보육시설 확충 유
 도, 보육의 질적수준향상을 위한 관련규
 정 정비 등 그동안의 시행과정에서 나타

난 문제점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그 주요내용은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사업장 확대(상시근로자 500인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의 운영비 일부 보조, 직장보육시설 설치 사업장의 부담 감소(보육비용의 100분의 50이상) 보육교사 양성과육과정 훈련시간 확충(1,200시간이상) 등이다.

- 보건사회연구원 시설평가제도 관련 간담회 개최

1월 19일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유아교육계장, 영유아보육시설연합회, 서울시민보련, 지탁연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작성한 보육시설의 시설평가제도에 대한 간담회가 있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규모, 형태별 평가제도의 차별성이 필요하다는 것과, 부모만족도에 '심리적 만족도'가 삽입되어야 함이 제기되었다. 또한 교육과 관련된 평가문에만 집중되었음이 지적, 건강, 영양 등에 대한 평가로 확대,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한편, 이날 제시된 시설 평가들은 다시 정리될 예정이며, 곧바로 사용할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 탁아시설 대폭 늘린다

맞벌이 부부의 자녀보육을 위한 탁아시설이 대폭 늘어난다.

서울시는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늘면서 대두되고 있는 보육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97년까지 구에서 보조하는 구립어린이집과 민간보육시설 1천140여개소를 확

충, 적어도 1개동에 1보육시설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1천750개소가 97년까지는 2천845개소로 늘어나게 된다.

시는 이번에 짓는 구립어린이집도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공장, 상업지역에 우선적으로 건설키로 하고 1차로 올해에는 사직, 구의, 금호동 등 24곳에 설립할 계획이다.

이밖에 사회복지관과 종교시설에 부설탁아소 377곳을 설립하며 이곳에는 설치비와 운영비를 구에서 보조해 준다. 또 개인이나 단체에서 놀이방과 같은 민간보육시설을 설립할 경우에는 건축비와 시설설치비를 융자해주기로 했다.

- 여연, 제9차 정기총회 가져

여연에서는 95년 1월 24일(화) 예정여전도회관에서 제9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80여명의 전국 여연 산하단체의 회원들이 참석하였는데, 94년 사업보고 및 승인, 감사보고, 재정보고 및 결산 승인, 임원선출이 있었으며, 95년도 사업보고 및 승인, 예산안 승인이 있었다.

임원선출에서는 대표3인의 연임이 결정되었다.

- '95 여성정책설명회 개최

1월 26일 정무장관(제2)실에서는 여성단체 대표자 초청오찬이 있었다.

이자리에서 정무장관(제2)실은 '95 여성정책설명회'를 갖고 참석자들에게 여성정책추진방향 등을 보고하였다.

이 자리에는 최현숙 본 회 회장을 비롯하여 회장단이 함께 자리하였다.

사람들

* 결혼을 축하해주세요.

- '우리네 아이들' 편집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 주혜민씨가 2월 19일(일) 오후 1시, 잠실 아시아공원 송파문화예술회관에서 '푸른영상'의 김태일씨와 화촉을 밝혔습니다.
- 한효정씨('해뜨는 동산' 교사)가 2월 26일(일) 오후 2시에 충남 서산 대원예식장에서 인생의 새출발을 합니다.

두분의 결혼을 지탁연 식구들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이전을 축하해주세요.

- 샘골어린이집, 일터아가들의 집이 더 나은 공간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또한 민들레 어린이집은 공립보육시설로 위탁받아 이전하였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가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웃음소리로 넘쳐나길 바라겠습니다.

연합회 일지

12/28

- 1/3-5 겨울수련회 및 제10회 정기총회
- 16 편집회의
- 17 서울시 민보련 창립대회
- 18 자원활동가 연대회의
- 19 보건사회연구원 시설평가제도 관련 간담회(최현숙 회장 참석)
- 21 교육연구부 모임
- 23 여연 실무자회의
- 24 자원활동가 연대회의
- 여연 정기총회
- 26 서울경인지역대표자회의
- '여성평화의 집' 정기 이사회
- '95여성정책설명회(정무제2장관실)
- 2/ 3 서울시 보육위원회
- 4 영아탁아소모임
- 6 전국민간보련 수도권 준비모임
- 8 편집회의
- 서울시 민보련 회의
- 9-11 자원활동가 겨울합숙
- 13-14 지역대표자 합숙
- 21 여연 집행위
- '아동권리협약' 모임
- 22 여연 정사위

■ 벼룩시장

* 벼룩시장에서는 여러분이 알고 싶은 모인, 수익사업, 물품교환 등의 정보를 실습니다. 정보를 주시고자 하는 회원께서는 지체없이 편집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를 구합니다. 본 회 소속 어린이집에서 활기찬 보육활동을 함께 하고자 하는 의욕찬 교사를 구합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어린이집이나 본 회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칫솔 판매 농촌탁아소 재정마련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칫솔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품질 보장에, 가격은 한셋트(4개입)에 2,500원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나볼 때까지 계속 기다립니다. "우리네 아이들" 생산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면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희망자는 연락하러 신청하세요. "우리네 아이들" 편집부	지역보육운동, 아직도 못보셨다구요? 일본 보육운동의 산 증인 스즈키 쇼조 선생님의 교육관을 놀이, 가정, 지역, 인권 등의 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이와 생활하는 보육교사의 필독서! 더 늦기 전에 구입하세요. 문의는 연합회로. 판매가 : 5,000원
♥ 소식지 통권본이 나왔습니다. 92년 5월 첫발행이었던 제1호부터 94년도 12월호까지 통권 26호의 '우리네 아이들'이 92, 93, 94년도별로 3권으로 발행되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본 연합회 사무국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각권 20,000원 1세트(3권입) 50,000원	그림책 우편판매!! "우리네 아이들"에서 소개되는 좋은 그림책을 판매합니다. 판매가는 할인되지 않지만, 신청하신 회원들(자료회원 포함)에게는 무료로 발송해드립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보리 세밀화 시리즈1.2: 각 8,000원 안녕시리즈 1세트: 20,000원 담당: 오윤정교육부장
♣ '95 보육사업지침 판매 1995년도 보육사업지침이 나왔습니다. 보육사업지침을 구입하지 못하신 분은 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판매가 : 4,000원	아동보육사업 경영경제론 할인판매 본회에서는, 아동보육사업의 경영경제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총괄, 체계적으로 수록한 [영유아 총서 : 아동보육사업 경영경제론(이석무 저, 혜화당 펴, 정가 11,000원)]을 정가보다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판매 희망자는 본 연합회로 연락하거나 직접 방문 구입을 하면 된다. 판매가 : 10,000원(외부) 9,000원(내부, 자료회원)

■ 편집부에서

* 자료회비를 인상하였습니다.

"우리네 아이들"의 증면과 연합회 재정상의 문제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자료회비를 인상하였습니다. 인상된 자료회비는 1년 25,000원(중전 20,000원), 6개월 13,000원(중전 10,000원)입니다. 회비인상은 95년도 3월호부터 적용됩니다. 단, "우리네 아이들" 구독기간이 만료되지 않으신 회원은 구독기간 만료 시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회비를 인상한 만큼 보다 깊고 넓은 여러분의 "우리네 아이들"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 이쁜 얼굴을 보내주세요.

탁아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의 표지사진을 공모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주변에서 찍은 아이들의 해맑은 모습을 담은 사진이면 됩니다. 보내주신 사진은 반환을 하지 않으며, 사진공모에 응해주신 분이나 어린이집에는 작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신입 편집부원을 모집합니다.

항상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편집부에서는 "우리네 아이들"의 내용을 보다 알차고 풍부하게 담을 수 있도록 자신의 능력과 애정을 투자할 신입 편집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탁연 소속 어린이집의 전, 현직 교사나 기타 보육활동에 관심이 있으신 이들의 참여 바랍니다.

* 후원해주시고 계십니다.

김일명님께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항상 연합회를 생각해주는 마음, 고맙게 받겠습니다.

* 자료회원 회비를 받았습니다.

6개월 구독 : 윤유선님(재구독), 김미현님
동두천 하늘놀이방(신난숙)
1년 구독 : 조점숙님, 박정희님, 나라사랑청
년회(서미연)

의 자료회원 회비를 받았습니다.

구독기간이 마감되었거나 구독신청 후 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님께서서는 온라인 입금 후 본 연합회 사무국에 연락하여 주세요.

* "우리네 아이들" 다음호엔
신혼인기를 축하할 수 있을 것 같아
기쁜 2월이다.

- 혜현

* 봄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혜현언니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 미양

* 결혼 소식도 듣고 제법 봄냄새가 난다.
항상 연초의 고민, 어떻게 더 잘 일하는 소식지를 만들까? 고민만큼 알차 : "우리네 아이들"이 되어야 할텐데...
봄 한해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 희연

* 그대, 혜현언니 결혼 무지무지 축하하고,
내 결혼 1주년도 자축해야지.
랜지 좋은 예감이 드는 올해야이다.

- 미혜

'우리네 아이들'을 매월 정기적으로 받아보시려면...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에서는 보육사업에 종사하는 많은 보육시설종사자와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탁아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을 매월 정기적으로 발간합니다.

'우리네 아이들'은 보육과 관련된 각종 연구결과, 영유아 교육의 이론 및 실제 프로그램과 보육사업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싣고 있습니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에서 정기발간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정기구독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 연합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사업에 힘쓰시는 모든 분들의 노력에 감사하는 뜻으로 좋은 내용, 알찬 정보를 가지고 계속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 자료회원이 되시면

- 1) 소식지 '우리네 아이들'을 매달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2) '우리네 아이들'외 본 회에서 제작하는 각종 자료집 및 책자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며 회원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3) 본 회에서 주최하는 여러 교육과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자료회원 신청은

- 1) 본 연합회 사무국으로 전화연락을 주시거나 우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2) 우편발송시 '우리네 아이들'을 받아보실 분의 성함과 직업, 나이,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입하시고 어떻게 '우리네 아이들'을 보시게 되었는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3) 신청후 회비는 다음으로 송금해주시면 됩니다.
- 4) 송금 후에는 반드시 연락을 해주십시오.

다 음

신청접수: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우리네 아이들'편집부 앞
☎ 275-8505~6

(0654)'63-0962,

송금구좌: 국민은행 068-21-0479-041 정희연

(6개월 구독 13,000원 1년 구독 25,000원)

♥지탁연 가족이 함께 만든 이 책을♥

어린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드립니다.

펴낸곳: 지/역/사/외/탁/아/△/연/업/외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8번지 84호
여성평화의 집 3층 (우)100-391
☎ 02)275-8505~6 FAX: 275-8506

펴낸이: 최현숙

목록은이: 정희연, 변미양, 주혜민, 황미혜

펴낸날: 1995년 2월 23일

판매가 : 3,000원